

진 화 하 는 한 옥

2011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국토해양부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국토해양부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우리 건축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현한 한옥 건축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옥 문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한옥 정책을 선도하는 주무부처로서 한옥 건축 활성화를 통한 국토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한옥 또는 한옥 마을 조성 시 제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한옥의 건축비를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남아있는 한옥을 보전·활용하여 도시·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의 후속조치로 2011년 5월에 개소하였으며 한옥 관련 정책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한옥 정보의 교류를 담당하는 한옥 문화 진흥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이 공모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품들이 우리 한옥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모주제

「Neo-Hanok Vision : 진화하는 한옥」

현대인을 위한 新한옥의 모습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한옥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한옥은 한 순간도 고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해 온 건축유형이다. 온돌과 마루를 결합하여 사계절의 날씨에 적응했고, 크고 작은 채들이 서로 맞물려 구름이 많은 지형에 자리 잡았다. 여러 마당을 두어 기능과 환경을 조절했고, 문과 담장을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조정했다. 공간에서 예의를 반영하고 질서를 표현하여 전통적 세계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근대시기 도시에서 모습을 바꾸어 주택부족을 해결한 것도 한옥이었다.

이제 한옥은 또 한 번의 진화를 시작했다. 수 십 년간 한국의 대표 주거유형의 자리를 양옥과 아파트에 내어주었던 시기를 지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개발 압력을 이겨낸 한옥은 단정하게 정비되어 갤러리·음식점·상점·병원·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한옥들은 중층화를 모색하고, 대공간을 만들며, 현대건축과 조합되는 등 다양한 갈래로 진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의 주제는 이처럼 진화하고 있는 신한옥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부문은 편의상 주거, 비주거, 공공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공모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용도 계획과 참신한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삶의 행태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옥을 통해 친환경·녹색성장, 무장애 공간 등 현대 도시·건축의 화두를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이번 공모전의 목표는 전통한옥의 재현이 아닌 신한옥의 창작이다.

공모진행과정

[계획부문]

참가대상 _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공모부문 _ 주거, 비주거, 공공공간 부문

진행일정

2011. 07. 29	공모공지
2011. 10. 04 ~ 10. 06	1차 작품접수 (152개 접수)
2011. 10. 10	1차 심사
2011. 10. 11	1차 심사결과 발표 (72개 선정)
2011. 11. 07 ~ 11. 10	2차 작품접수 (64개 접수)
2011. 11. 16	2차 심사
2011. 11. 21	최종수상작 발표
2011. 11. 28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준공부문]

참가대상 _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공모대상 _ 2008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 사이(공모공지 시점으로부터 만3년 이내)에 준공 완료된 한옥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진행일정

2011. 07. 29	공모공지
2011. 09. 14 ~ 09. 22	1차 작품접수 (18개 접수)
2011. 09. 28	1차 심사
2011. 10. 11	1차 심사결과 발표 (8개 선정)
2011. 10. 15 ~ 10. 16	2차 심사 (현지실사) 및 종합심사
2011. 10. 20	최종수상작 발표
2011. 11. 28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201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장 순 용 (운영위원장)	삼아성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강 순 주	건국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사)한국주거학회 회장
	김 용 미	금성 건축사사무소 대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우 동 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정 석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 성 호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팀장
	권 영 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심사위원	박 경 립 (심사위원장)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구 영 민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송 인 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울학연구소 소장
	정 영 선	(주)서안조경 대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겸임교수
	홍 승 재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김 성 호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팀장
	권 영 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Contents

계획부문

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옛 성곽을 품어 안다 신상현, 송민섭, 조정진 (서울시립대학교)	08
금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상)	
瓦木石 (와목석) 정용수 (일반)	10
은상	
SOHO형 한옥마을 만들기 신수영, 신동원, 김영균 (일반)	12
삼분의 일 곱하기 삼(1/3 X 3) 김정현, 김지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14
T자형 골목과 도시형 한옥 이철민, 서가영 (서울시립대학교)	16
동상	
한옥에 관한 암묵적 동의 선진우, 성병준 (서울시립대학교)	18
한옥의 입체적 풍경 김윤수, 조인경, 임수경, 김 완 (일반)	20
소요현(逍遙軒) 정희태 (일반)	22
입선	
new korea housing 박성준 (일반)	24

마당, 깊고 높게 담, 넘어 락(樂) 고성숙, 박민수, 이정현, 김대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
'간' for sale 윤지애, 정성학 (홍익대학교 대학원)	28
한옥의, 한옥에 의한, 한옥을 위한 박슬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30
창덕궁과 종묘 사이 박우성 (성균관대학교)	32
7개의 마당 정우석 (일반)	34
그대가 걷던 그 길을 걷다 한승규, 김민혜, 류광현 (청주대학교)	36
한옥, 일상으로의 회귀 김민호, 권오상 (일반)	38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가회동 열(L) 주택 황두진(설계자), 김장권(시공자), 이지홍·오모연(건축주)	42
올해의 한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상)	
구로구립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조정구(설계자), 정구환(시공자), 구로구청(건축주)	44
불교사찰 천간사 조인숙(설계자), 이무희, 김정범 (시공자), 천간사(건축주)	46

Neo - Hanok
V i s i o n

I
계획부문

옛 성곽을 풀어 안다

(성북동 한옥 공동주거 계획안)

수상자 : 신상현, 송민섭, 조정진 (서울시립대학교)

Site location_seongbuk-dong

성북구에 자리잡고 있는 성곽길에 집중한다. 한옥은 한 배치에서 있어서 남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현 사이트는 남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경사지이고, 주변건물이 1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좋은 채광조건을 가진다. 또한 남쪽의 성곽을 바라보는 좋은 조망조건까지 가질 수 있어 한옥이 자리잡기에 최상의 장소이다.

Site plan diagram

6m 지어, 주차장 & 주 출입구, 밀도, 복층, 중정과 뒷마당

각 주거 유닛을 복층화 한다는 전제 아래, 배치와 동선을 계획했다. 특히 한옥의 담고 단문을 이용하여 주거의 내밀함과 개방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당을 4개의 계로 만들었다.

차마 및 동선, 외부공간분리, 유닛과 외부공간

Site plan_1/500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로 23길 지역지구,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07.67 m²
 건축면적, 425.57 m²
 용적률 상한면적, 784.87 m²(지하주차장 제외)
 지하주차장면적, 333.18m²
 용적률, 97.2 %
 건폐율, 53.7%
 단위세대, 8세대
 주차대수, 8대

Level +2200_1/200, **Level +5000_1/200**, **Level +8000_1/200**

0. 주차장 1. 작은 마당 2. 안 마당 3. 중앙 마당 4. 마을마당 5. 누마루 6. 창고 7. 통합대청 8. 다용도실 9. 야외계단 10. 주민교실방 11. 마을 쉼터 A-H 단위세대

Urban section_1/100

경사에 따라 놓여진 네개의 마당과 공용공간은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힘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각 유닛은 중앙의 개방된 큰 마당과는 별도로 뒤편에 작은 사적공간을 갖는다.

Unit plan & section_scale 1/100

Unit A Area: 46m², Unit B Area: 44m², Unit C Area: 70m², Unit D Area: 76m², Unit E Area: 70m², Unit F Area: 76m², Unit G Area: 113m², Unit H Area: 60m²

Structure concept

Elevation_3 proportion

A-A' scale 1/100, B-B' scale 1/100

복층 한옥의 입면은 지붕과 벽, 길에서의 비례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매스와 담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도시속에서 한옥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는 한옥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한옥은 마당을 통해 더욱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형태를 취하고 있어 아파트와는 달리 많은 집점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기구가 모여 특정 공간을 공유하고, 집합의 형태로 모여 산다면 기존의 한옥과는 달리 밀도를 높임으로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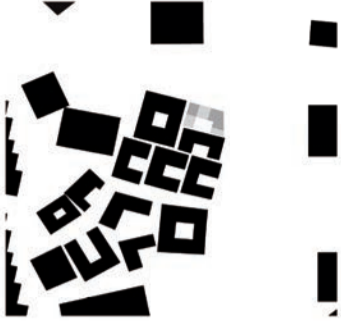
사이트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2구역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 구릉지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서울 한양도성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약 50채의 한옥이 마을을 이루며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는 새로 들어설 한옥마을 입구에 사이트를 선정, 한옥마을의 입구성을 강조해 주며, 이 마을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경사에 따라 크게 네 개의 마당이 생기고, 각 마당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로축에 놓인 공용공간은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힘으로써 마당 공간의 영역을 확장 가능케 한다. 이 공간은 단순히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유닛은 중앙의 개방된 큰 마당과는 별도로 뒤편에 조그만 마당을 가짐으로써 사적인 공간을 지닌다. 유닛은 복층으로 계획하여 기존 한옥과는 달리 밀도를 높였으며, 모든 유닛을 땅과 접합하여 마당과의 관계를 높여 했다. 우리는 경사지역에 복층 한옥구조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기존한옥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고, 또한 한옥이 도시 속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瓦木石 (와목석)

수상자 : 정용수 (일본)

瓦木石 와 목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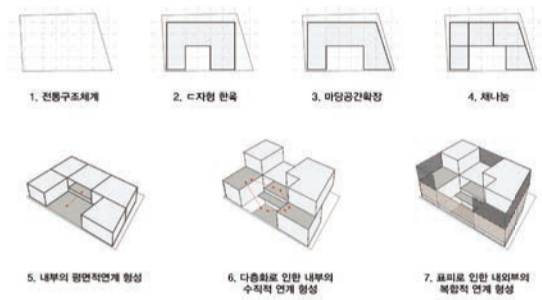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북촌에 위치하여 대지 시간 중 두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입지성이 높은 조건인 부지이다. 사실상 오늘날 북촌에 거주한다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북촌은 도심 내 최대 한옥밀집 주거지역이지만 그와 동시에 서울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인에게 자주 노출되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즉 북촌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실상 사적인면서도 공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태라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관광의 대상이 되기를 염두에 둔 대지 특성상 대지 시간 중 두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입지성이 높은 조건인 부지이다. 물론 북촌이라는 지역특성상 기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주거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집은 전통주거에 근간을 두지만 과거만을 좇지 않고 현재의 시간적, 지역적 조건에 부합하여 주변한옥과 함께 북촌의 장려의 일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신 한옥(New-Hanok)이다.

전통건축의 입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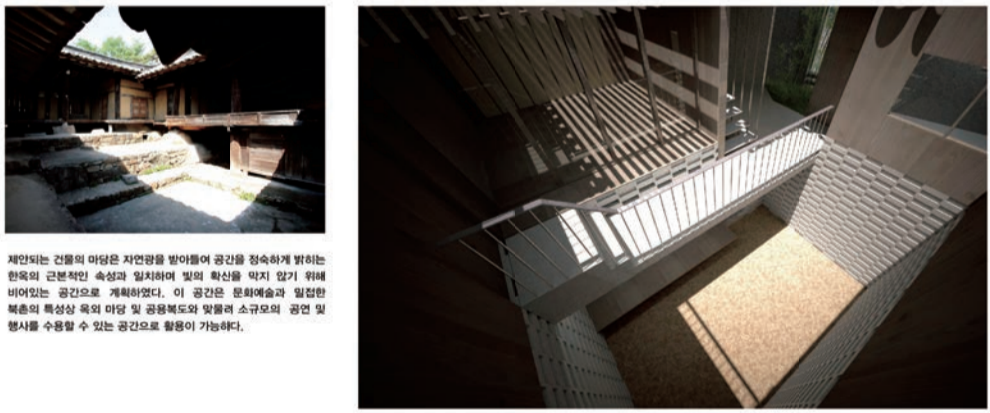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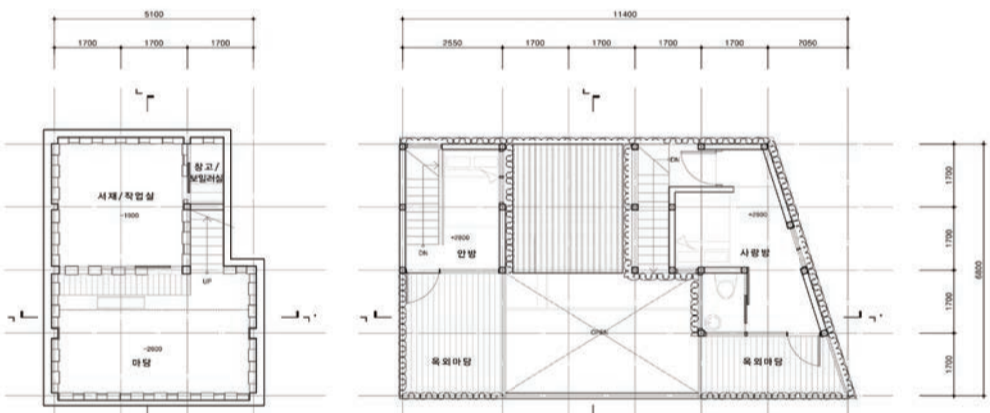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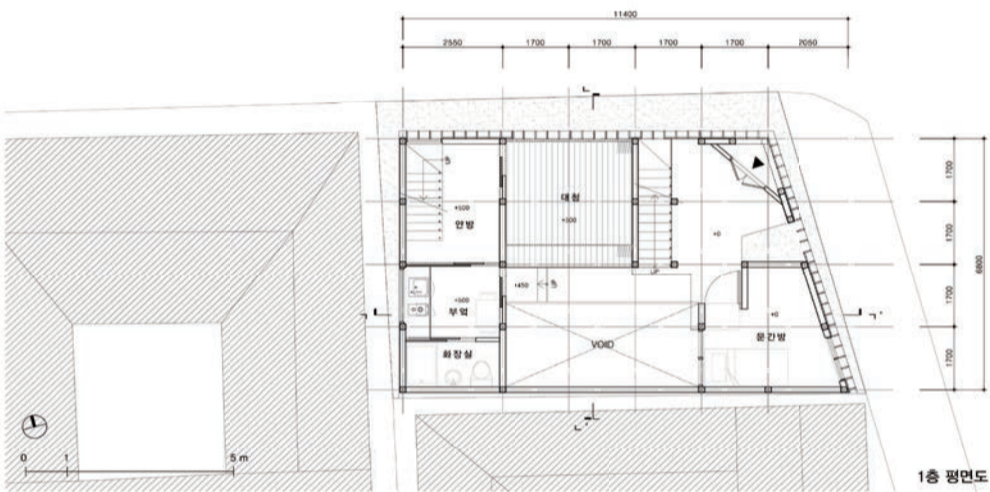


재안되는 신 한옥은 기존 한옥을 이루는 주된 세 가지 재료인 기와, 목재, 석재재를 표피 화하여 주변 한옥의 물성과 상용하면서도 그 형상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의 건축이다. 실제로 두 도료를 합하고 있는 대지 특성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지향적 구조를 가지어 이는 자연스레 외부로는 닫히고 내부로 열린 구조를 갖는 전통적인 한옥의 특성과 일치한다. 둘러싸인 외벽은 단층이 단층적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Faces are not dresses or facades. They are organs.' 라는 Mijica Park의 말처럼 외벽은 주거 내부의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시스템 안에서 재해가 가능하고 서로 다른 재료들이 적용되어 내 외부간의 소통의 기관(Organ of Communication)으로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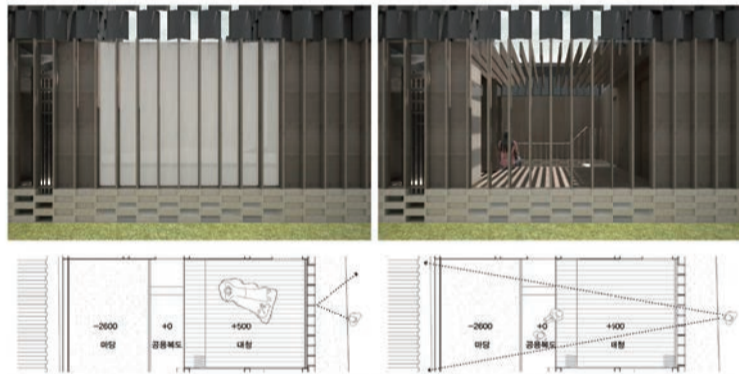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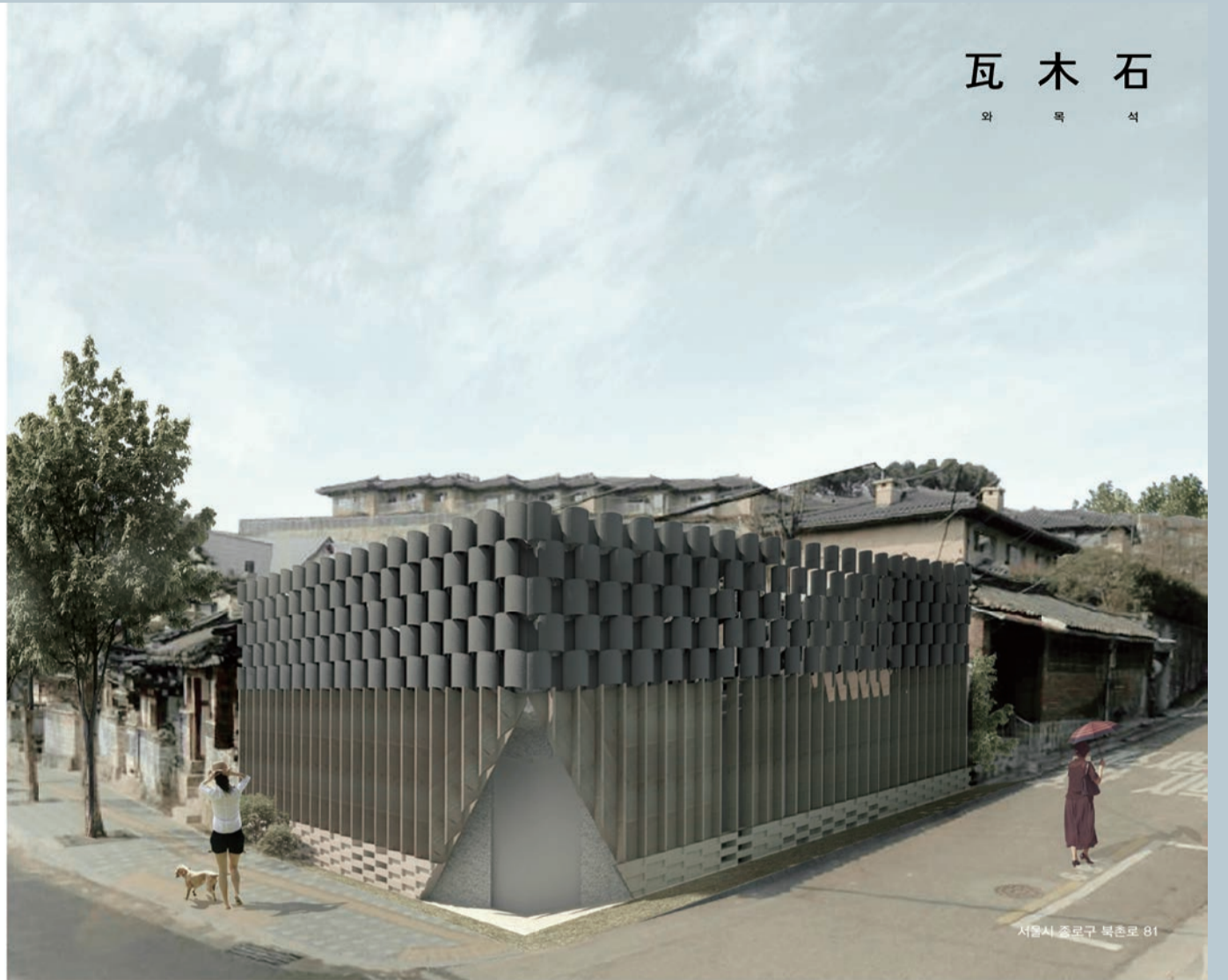


전통공간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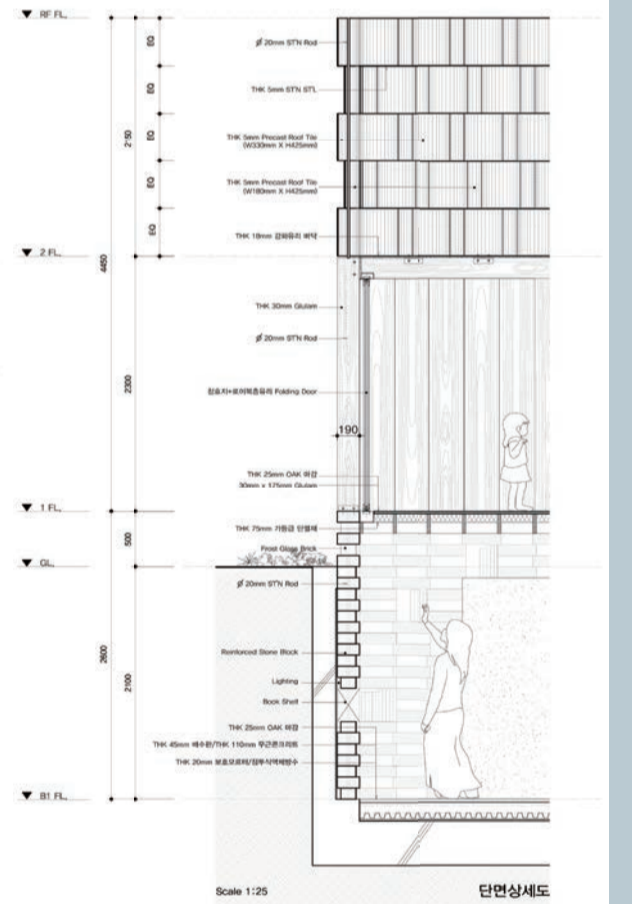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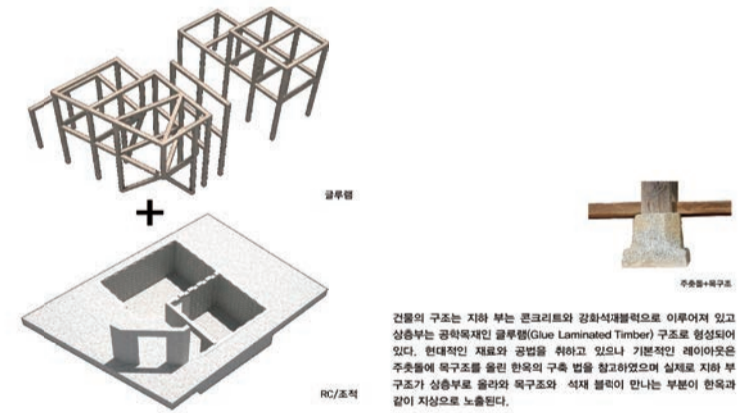
재안되는 건축물의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북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C자형의 도시형 한옥방안구조를 따른다. 기존 한옥들과 같은 놀이를 유지하여 주변 환경에 순응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전통적인 한옥과는 다르게 수직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갖는다. 과거 구조 및 공법의 한계에 의해 높이 2층에 남는 지붕과 지붕에서의 세차 기둥이 벽에 의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은 낮은 층고의 단층으로 제한되었으나 현대식 건축 방식을 적용한다면 같은 높이를 안에서 각 층의 용기 공간으로서의 독립성을 더욱 확보하는 동시에 상층의 내 외부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맺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옥의 공간구성을 근간으로 현대인에게 맞는 진화된 주거형태로서 한옥의 화양안을 부분적으로 중첩 적용하고 내외공간을 유동적 형식, 혹은 주변 환경이 이끄는 제 기능적 측면에 따른 새로운 공간설을 갖춘 주거가 아닌 한옥주거의 전통을 잇는 진일보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재안되는 건축의 마당은 자연광을 받아들여 공간을 장수하게 밝히는 한옥의 근본적인 속성과 일치하며 빛의 확산을 억제 하지 않기 위해 비어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 공간은 문화유산과 밀접한 북촌의 특성상 옥의 마당 및 공명효과와 맞물려 소규모의 공간 및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을 가더라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마쳐서 형성된 담장과 처마뿐이다. 두꺼운 벽에 둘러싸인 한옥의 내부를 인지하기는 불가능하여 안에서 상당 공적인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기법적요소가 필요하다. 대청에 설치된 물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요구된 계층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이 자유롭고 이어지는 대청을 온사이에 혹은 순환적으로써서의 전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로 하여금 가로변에 걸음을 재촉하여 계획되지 않은 거리의 지평을 비롯한 북촌의 장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북촌은 도심 내 최대 한옥밀집 주거지역이지만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외부인에게 빈번하게 노출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촌의 거주공간도 관광의 대상으로서 간주되는 동시에 사적인 공간으로서도 무리 없이 기능하는 탄력적인 집의 형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제안하는 건축은 전통주거에 근간을 두지만 과거만을 좇지 않고 현재의 시간적, 지역적 조건에 부합하며 북촌의 장려의 일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신 한옥 주거이다. 기존 한옥을 이루는 주된 세 가지 재료인 기와, 목재, 석재재를 표피 화하여 주변 한옥의 물성과 상용하면서도 그 형상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의 건축을 포상한다. 둘러싸인 와목석(瓦木石)의 외벽은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근간을

두어 진화한 내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깨어되거나 서로 다른 재료들이 적용되어 내 외부간의 소통을 조절하는 기관으로서 작용한다. 제안하는 신 한옥으로 하여금 금구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전통한옥의 연장선상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주거모델로서 인식되는 동시에, 북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한옥을 추상화한 하나의 조각품, 아트웍으로서 인지되어 북촌의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위한 건축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SOHO형 한옥마을 만들기

수상자 : 신수영, 신동원, 김영균 (일반)



SOHO형 韓屋마을 만들기

요즘을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부동산 불패의 시대는 이제 지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불량주택이나 노후주택들에 대한 꾸준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다른 어느때보다 대두되고있는 지금 우리는 노후주택밀집지역의 소규모 단위 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소호형 한옥(WH)마을을 생각해 보았다.

주거의 기능만을 수행하던 노후주택을 시대적 흐름이나 경제적 자족성을 고려한 SOHO Town으로 변신 시킬 수 있는 Convergence된 한옥마을을 고민하였다.

앞에서 보여진 표준형 한옥 시스템을 일상적 대지에 적용하여 단지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한옥형 SOHO마을은 기존 주거기능만을 수행하던 마을과는 다른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으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Better Life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통주택 양식을 표준화 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개량의 의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순수 주거부는 온전히 표준형 한옥을 제안하여 전통주택을 그대로 앉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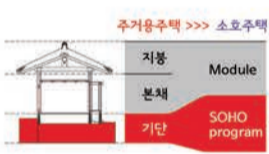


What's Idea? 4-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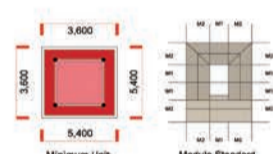
1. 한옥이 가지는 전통적 건축구조를 현대의 요구와 접목하여 재해석한다. - 소호프로그램의 확장
2. 보급형 시스템으로서 가능하도록 모듈화하여 현대 공동주택의 가치를 담는다.
3. 땅공주택의 사례를 통해 공동 점유를 통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한다. - 공동마당과 공동주차장
4. 개인미디어의 시대, 시대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든다.



1. 한옥의 단면적 재구성



2. 12칸 모듈화를 통한 한옥의 단위표준화



4. 지속가능한 소호형 韓屋 마을

Street에 면한 기반부는 다양한 거리의 성격을 만들어주는 SOHO Program과 사랑방(Guest house)을 적용하여 소호거리를 가진 마을을 만든다.



3. 공동주차 중심의 Pair Typ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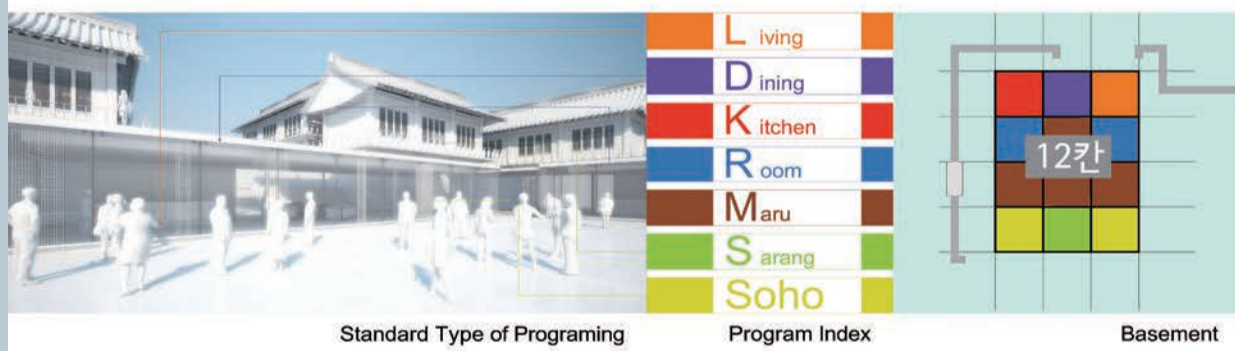
3. 마당을 공유하는 Pair Neighborhood



Standardization of 韓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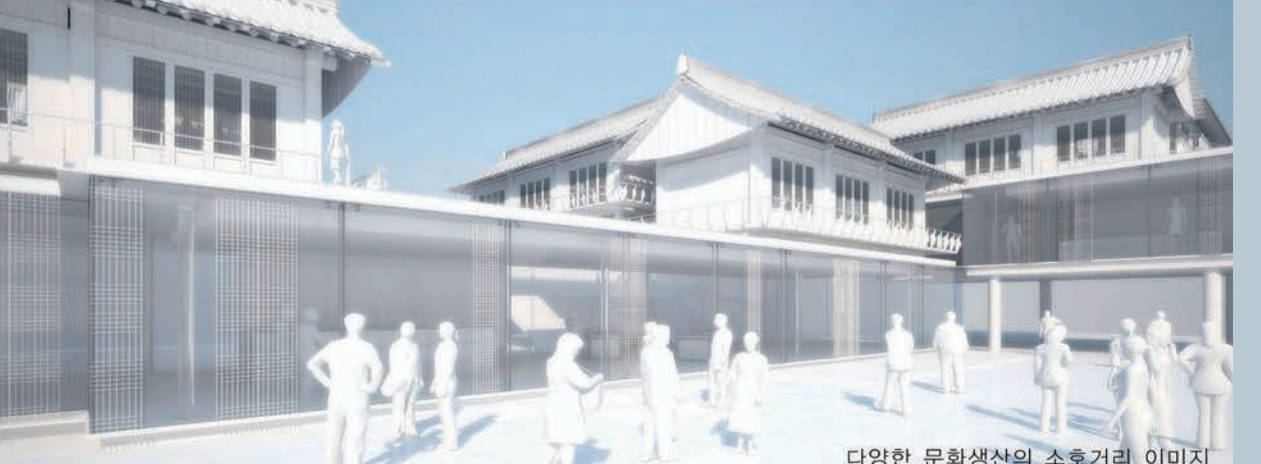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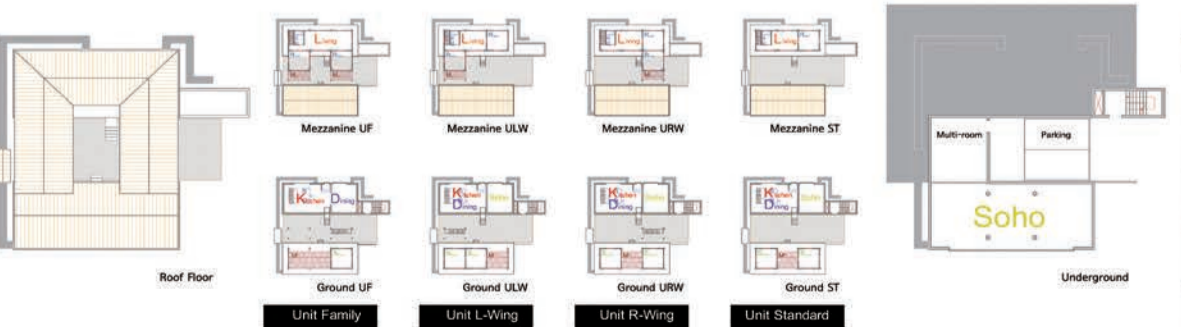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수를 가지는 한옥은 보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사례 분석과 도량형의 비교를 통해 표준형 한옥의 기본이 되는 치수를 도출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재치수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으며, 이러한 Unit의 조합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Variation은 표준화로 자칫 심심해질 수 있는 마을 구성의 다양한 경관을 제시할 수 있다.



Typo-Matrix

표준형 한옥의 최소단위를 구성하는 기반치수(@5400)와 실치수(@3600)로 결정된 Unit을 가지고 12칸 Standard type을 만든다. 이를 기본타입으로하여 구성원수와 집의 운용, 주거와 근린생활공간의 배분율에 따라 그리고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형 타입의 매트릭스가 가능하다.



4 Big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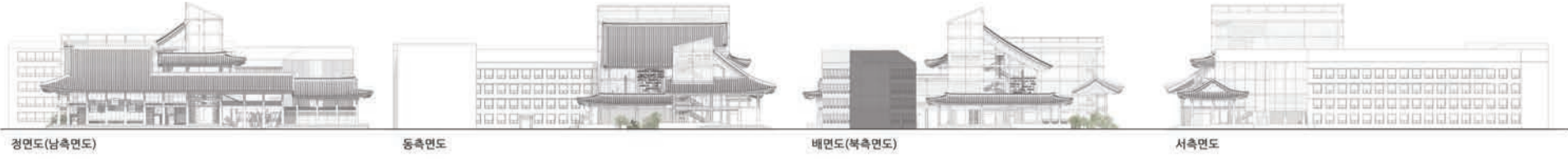
1. 한옥이 가지는 전통적 건축구조를 현대의 요구와 접목하여 재해석한다. - 기반과 소호프로그램
2. 보급형 시스템으로서 가능성을 위해 틀거리를 모듈화한다.
3. 공유가능 프로그램의 공동점유를 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한다. - 공동주차, 공동마당
4. 개인미디어, 개인기업의 시대,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접목한다. - 지속가능한 마을구현

SOHO형 韓屋마을

자생적 도시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청동 대지는 우리가 제안한 SOHO형 한옥마을의 소호프로그램들과 결합하여 문화의 공간적 확장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시스템은 표준화하고 한옥양식의 미적가치는 계승하여 과거와 현재가 조화로운 공존하는 가고 싶은 장소를 만들어내어 활성화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SOHO형 한옥마을은 역사의 가치성과 문화의 확장성의 접점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도시반응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며, 역사도시 서울의 구도심 재개발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삼분의 일 곱하기 삼

수상자 : 김정현, 김지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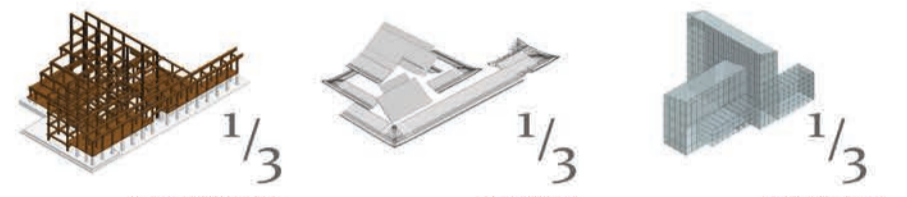
1/3 x 3

삼분의 일 곱하기 삼

건축이 현재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상의 대상이 아닌 사용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지 못하면 죽은 공간이며, 유물이 되고 만다. 한옥은 외형적인 감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의 질로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본 계획안에서는 한옥으로 리노베이션 한 종로구청사를 제안한다. 공공청사는 업무공간과 주민이용공간이 함께 있어 새로운 한옥이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한옥청사는 종로구의 상징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체험과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옥의 목가구구조의 원리와 지붕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되, 유리 매스를 삽입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간을 계획하였다. 아트트리움에서 볼 수 있는 한옥의 구조체와, 목가구구조가 유리로 씌워진 새로운 환경, 풍부한 자연채광이 가능한 지붕 아래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새롭게 보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기둥, 보, 도리교 이루어지는 한옥 목가구구조의 구조원리는 규칙적이지만 담을 수 있는 기능은 유연하다. 칸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공간은 벽체를 자유롭게 구획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유니버설 공간이다. 전통건축에 있어서 목가구구조 원리는 궁궐에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용도의 건물에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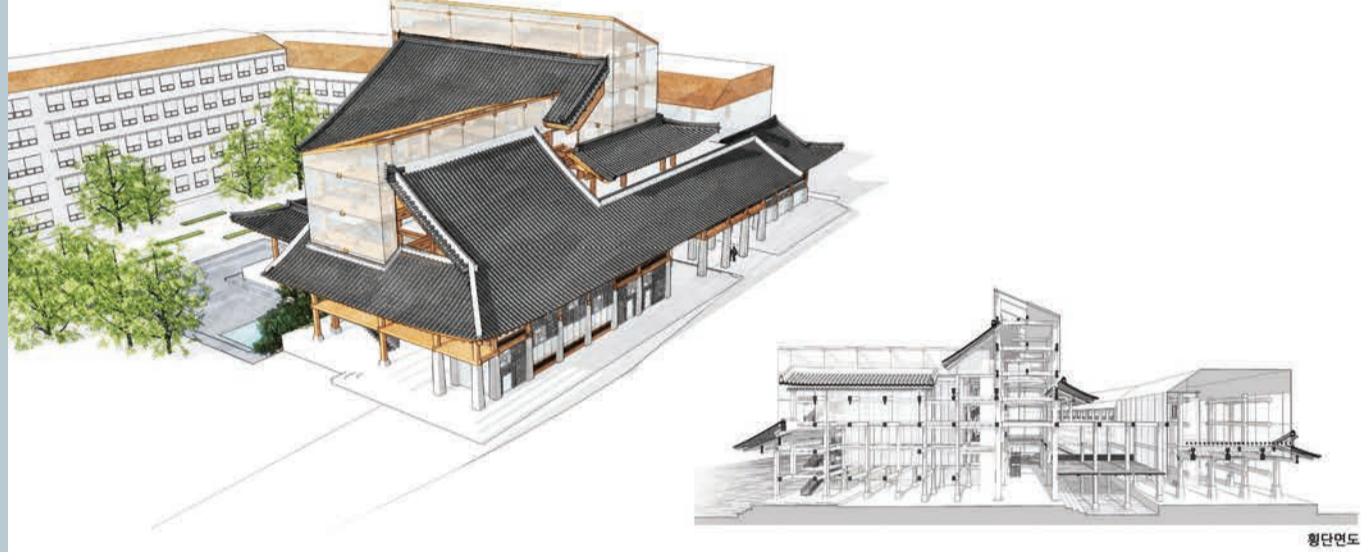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전통 목가구구조의 원리를 활용하여 건물을 구축하고, 여간, 퇴칸, 퇴칸 등의 공간적 리듬감을 살려냈으며, 강주와 이주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목가구구조는 재료 자체뿐 아니라 추후의 증개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친환경적이다.

팔각과 맞배 등 한옥의 지붕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형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구현하였다. 큰 지붕과 처마의 곡선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요소이지만, 근대 이후 효율성을 앞세운 평지붕이 도입되면서, 한옥의 지붕은 일상적인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계획안에서 지붕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만족시키는 요소일 뿐 아니라, 지붕 아래 공간이 업무 공간, 도서관, 휴게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아늑하거나 재미있는 내부공간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한옥의 구조체를 탐험하며 즐거워 한다.

한옥은 마당을 두고 여러 채가 배열되는 식으로 규모를 키워나간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에는 좀더 밀도 높은 공간이 필요하다. 유리매스의 건물 내로의 삽입은 한옥의 외부공간을 내부화한 것이다. 이 공간은 건물 전체의 채광을 극대화하여, 어두울 수 있는 지붕 아래 공간에 충분한 빛을 공급한다.

건물에 들어서면 펼쳐지는 유리 아트트리움은 구조체를 투명하게 관해 건물 전체의 구성과 한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근대기의 박람회에서 새로운 기와 기술을 유리 아트트리움에 전시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옥을 전시한다.



평단면도



경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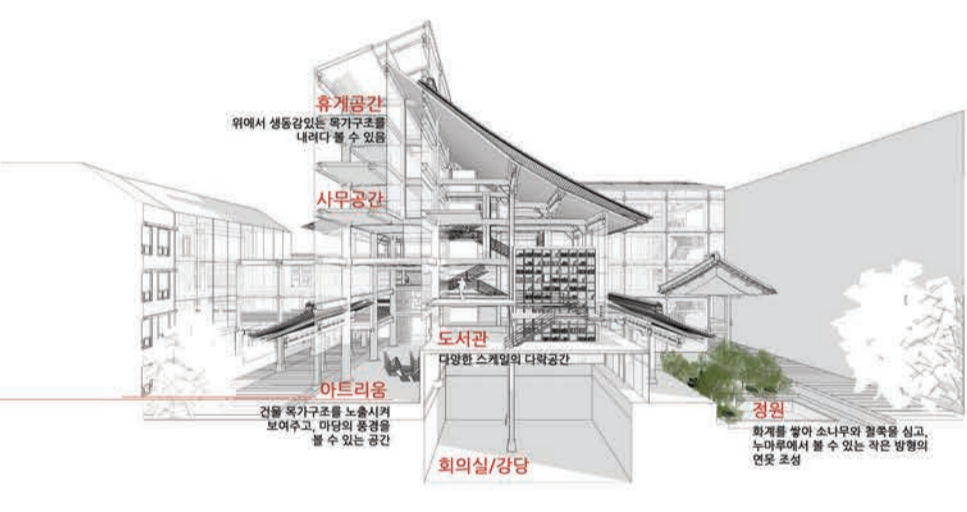
열주를 통해 청사의 상징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누마루 아래를 비워 기와와 소통

메인 아트트리움으로의 진입

마당과 정원의 아늑함

도서관

지붕층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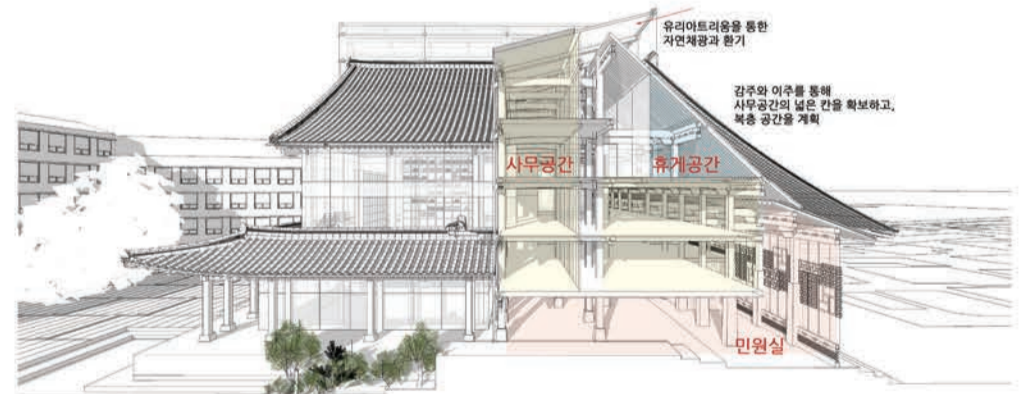
휴게공간

사무공간

아트트리움

회의실/강당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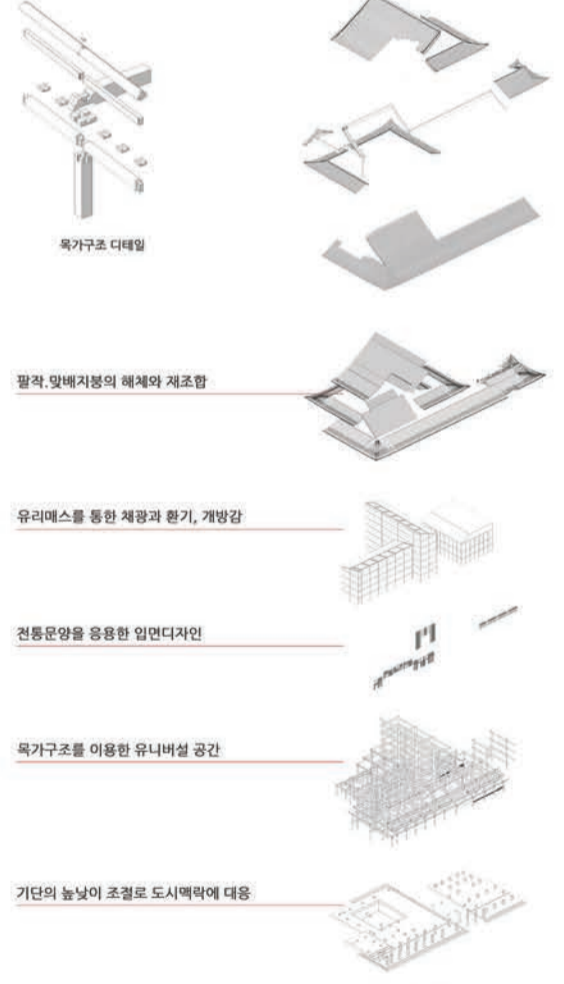
유리아트트리움을 통한 자연채광과 환기

강주와 이주를 통해 사무공간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지붕층 공간을 계획

사무공간

휴게공간

민원실



목가구구조 디테일

팔각, 맞배지붕의 해체와 재조합

유리매스를 통한 채광과 환기, 개방감

전통문양을 응용한 입면디자인

목가구구조를 이용한 유니버설 공간

기단의 높낮이 조절로 도시맥락에 대응

종로구청 리노베이션

상징적 중요성

한 종로구청 자리는 전통도시 서울의 중심인 경복궁 광화문 앞 육조거리의 한 켠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건너 광화문 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이곳의 위치는 한옥 공공청사가 위치하기 최적의 장소이다. 더욱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종로구의 특성 역시, 한옥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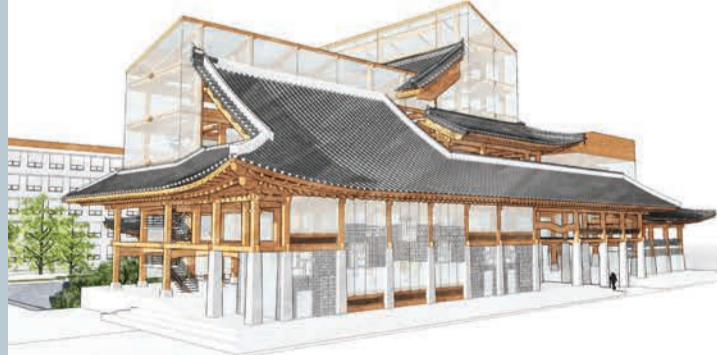
이곳은 경도전의 길터로 알려져 있으며, 사복시가 설치되었다가, 1922년 수송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해방 후 수송국민학교로 바뀌어 운영되었으며, 1977년 폐교하였다. 구청 안쪽의 마당은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의 아늑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은 한옥을 영입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며, 전면적 신축이 아닌 리노베이션 인을 통해 그 장소성을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보편적 중요성

현재의 구청은 옛 초등학교 건물을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은 현재 학교, 동사무소, 소규모 상가 등 우리나라 도시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한옥 공간을 삽입하는 것은 한옥이 도심공간의 문화적 경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기초에 있던 나무를 보존하고, 화계와 작은 연못, 잔디밭을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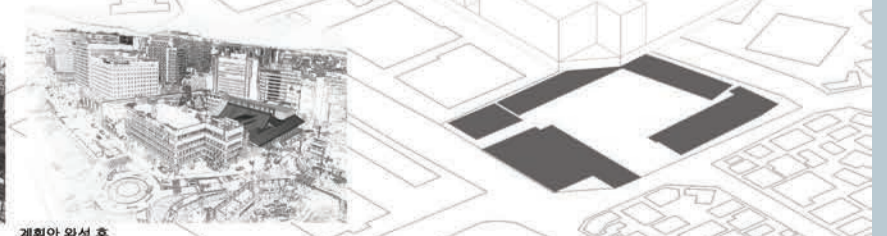
초등학교 건물을 보존하고, 지붕층을 리노베이션한 뒤 세 목조건물과 연결



대지 맥락 분석



현재



계획안 완성 후

어떤 건축이 현재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상의 대상이 아닌 사용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지 못하면 죽은 공간이며, 유물이 되고 만다. 이제 한옥은 갖고 있는 외형적인 감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질로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본 계획안에서는 한옥의 핵심요소인 목가구구조와 지붕을 이질적 요소인 유리매스와 결합하여, 이 시대의 한옥을 제안한다.

1/3, 목가구구조 : 기둥, 보, 도리가 반복되는 규칙적인 한옥 목가구구조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증개축에도 유리하다. 칸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공간을 자유롭게 구획하여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유니버설 공간이 탄생하였다.

1/3, 지붕 : 팔각과 맞배 등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 형태를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구현하였다. 지붕은 외관에서의 미감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 아래 공간이 업무 공간, 도서관, 휴게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1/3, 유리 매스 : 우리는 건물 전체의 채광을 극대화하여, 어두운 지붕 아래 공간에 충분한 빛을 공급한다. 건물에 들어서면 펼쳐지는 유리 아트트리움은 이 건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치라 된다. 현관과 이어지는 유리 아트트리움은 구조체를 투명하게 감싸 건물 전체의 한옥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청으로 평화문 앞 육조거리에서 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이곳에 한옥 공공청사를 계획하여 장소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본 리노베이션은 친밀하면서도 도시공간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되고,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자형 골목과 도시형 한옥

수상자 : 이철민, 서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이트 선정 및 사이트 분석

상업용지 주거용지 지역

기존 골목을 폐쇄하고 있는 상업용지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 지역

상업용지 주거용지 지역

기존 골목을 폐쇄하고 있는 상업용지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 지역

상업용지 주거용지 지역

기존 골목을 폐쇄하고 있는 상업용지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 지역

아이디어 + 디자인 프로세스

아이디어 + 디자인 프로세스

기존 골목을 폐쇄하고 있는 상업용지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 지역

기존 골목을 폐쇄하고 있는 상업용지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 지역

기존 골목을 폐쇄하고 있는 상업용지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 지역

입면의 texture는 각 가구의 다른 층들의 벽돌을 만들어낸 것에 의해 구성된다. 이로 인해 입면이 더욱 입체감을 얻는다. 통풍을 위해 창과 같은 재료는 되도록 대체함으로써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이라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입면의 texture는 각 가구의 다른 층들의 벽돌을 만들어낸 것에 의해 구성된다. 이로 인해 입면이 더욱 입체감을 얻는다. 통풍을 위해 창과 같은 재료는 되도록 대체함으로써 4가구가 밀착된 좁은 골목이라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T자 골목과 도시형 마당

프로그램

한옥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지금 역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한옥은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형 한옥으로 탈바꿈하였고, 상업용에서는 근대의 필지분할에 맞추어 'T자형' 도시형 한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밀도 있는 격자형 필지에 들어선 한옥들은 작은 사적인 마당을 가지고 한옥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도시와 소통하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는 현대 주거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울 수 있다. 답의 높이는 얼마 남지 않은 마당과 마당도 희박한 도시의 상황에서는 답도만큼이나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상업용의 격자형 그리고와 T자형 도시한옥들 간의 새로운 틈에서 색다른 패러다임의 도시마당을 제시해 보았다. 상업용 내에서 길과 한옥 간의 관계가 다른 필지들과 구별되는 T자형 골목과 그 골목을

1층 평면도 1:100

2층 평면도 1:100

3층 평면도 1:100

4층 평면도 1:100

5층 평면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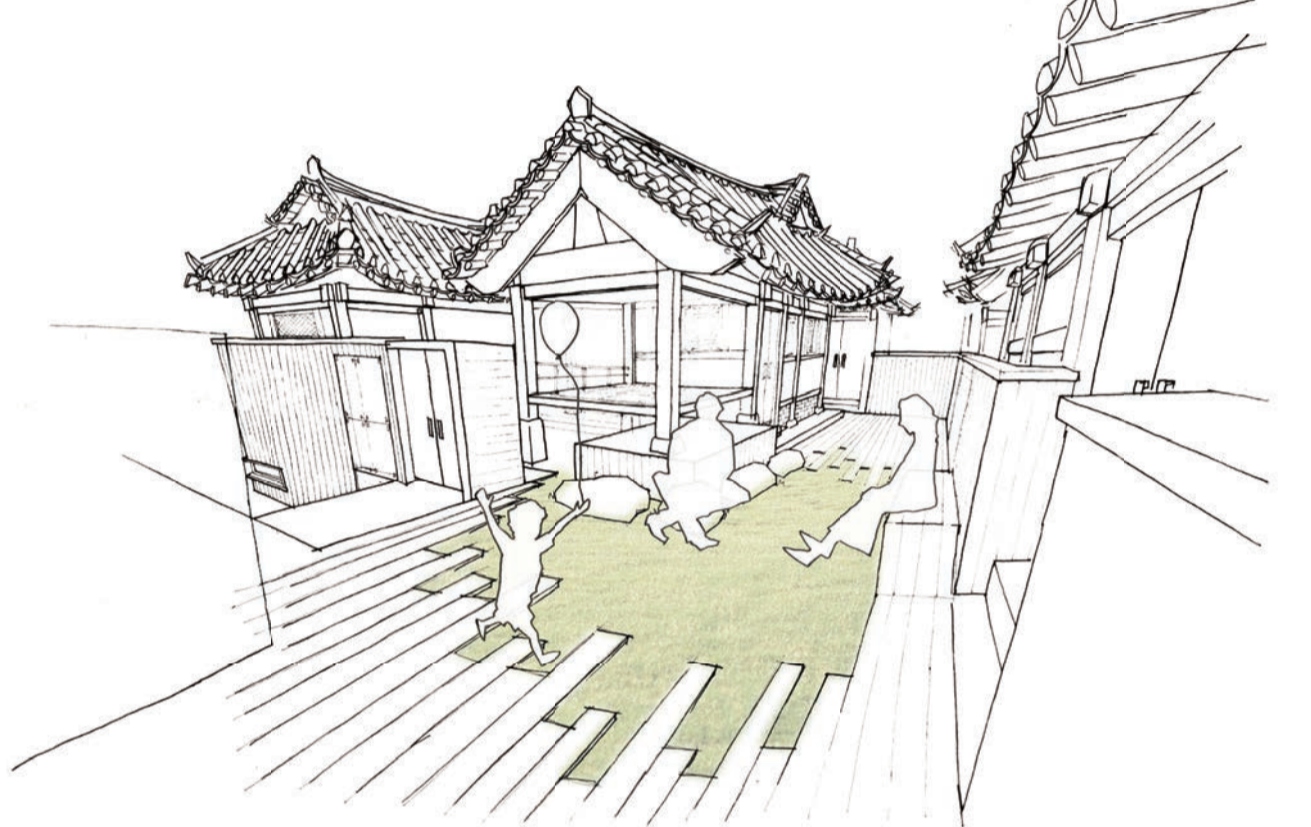
6층 평면도 1:100

7층 평면도 1:100

8층 평면도 1:100

9층 평면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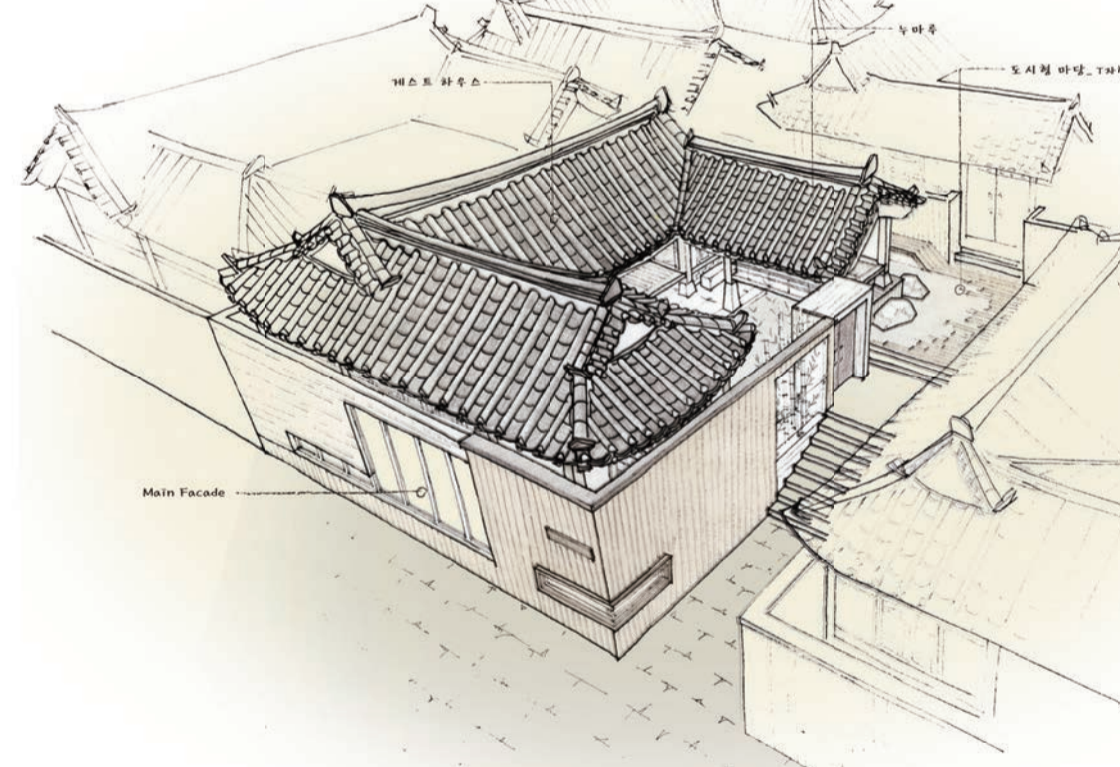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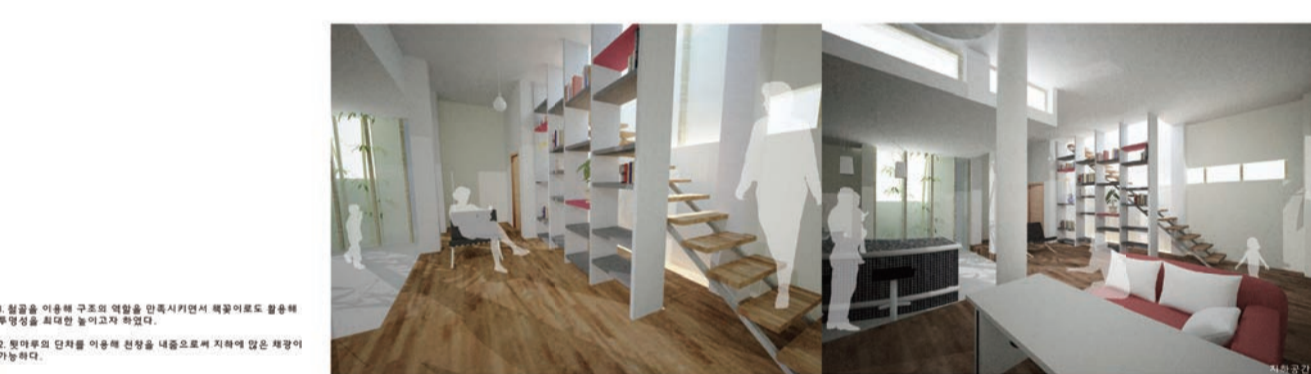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1:100



구조도 1:100

양식도 1:100

지하1층 평면도 1:100



입면구성

입면구성

입면구성

입면구성

서측 입면도 1:50

남측 입면도 1:50

단면도 1:50

단면도 1:50

한옥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지금 역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한옥은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형 한옥으로 탈바꿈하였고, 상업용에서는 근대의 필지분할에 맞추어 'T자형' 한옥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밀도 있는 격자형 필지에 들어선 한옥들은 작은 사적인 마당을 가지고 한옥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도시와 소통하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는 현대 주거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울 수 있다. 답의 높이는 얼마 남지 않은 마당과 마당도 희박한 도시의 상황에서는 답도만큼이나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상업용의 격자형 그리고와 T자형 도시한옥들 간의 새로운 틈에서 색다른 패러다임의 도시마당을 제시해 보았다. 상업용 내에서 길과 한옥 간의 관계가 다른 필지들과 구별되는 T자형 골목과 그 골목을 마주하고 있는 6개의 한옥가구들을 사이트로 하였고, 본 공모전의 주제인 신한옥의 방향을 제시하며 기존 한옥이 가진 identity와 사이트가 가진 context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사회에서의 한옥으로서 새로운 생활형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한옥과 길과의 관계를 재고함으로써 단순히 통로역할을 하는 골목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시마당)으로 디자인하였고 기존골목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옥에 변화를 주는 작은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간에 큰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였다.

한옥에 관한 암묵적 동의

수상자: 선진우, 성병준 (서울시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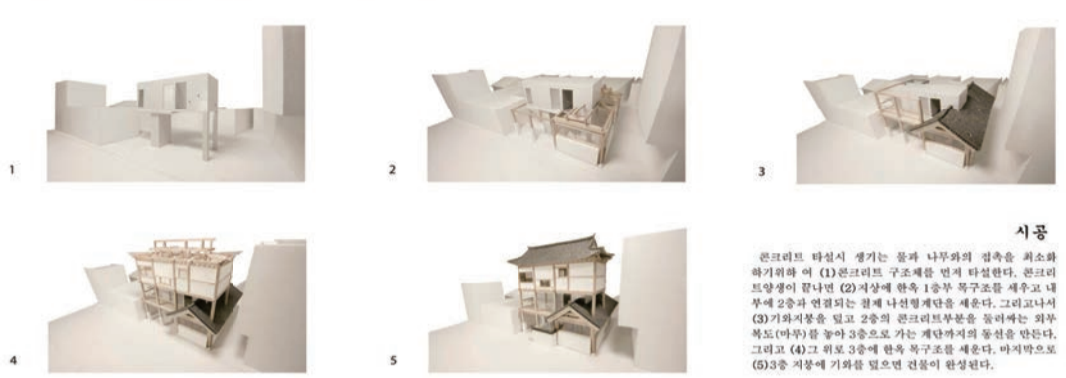
한옥에 관한 암묵적 동의 series #102

변동적 개념 + 현대건축의 재료 = Neo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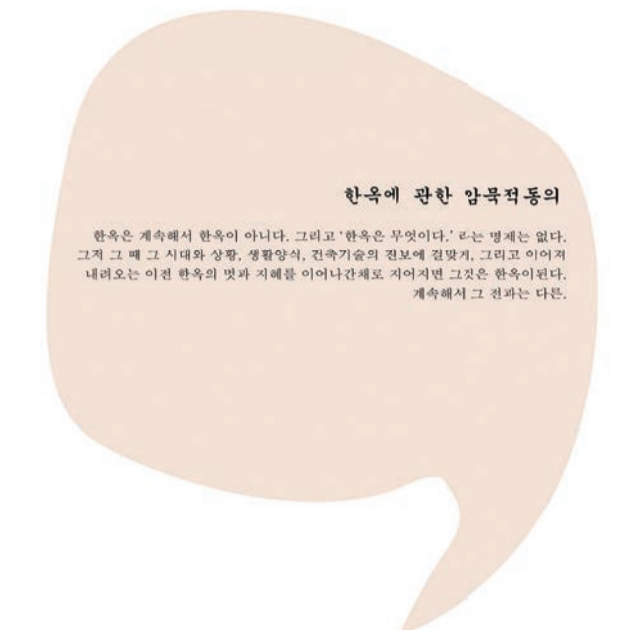


한옥은 아름답다. 지혜로운 건축이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대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기존 한옥의 여러 요소들은 다른 재료, 구축법과 결합함으로써 단점은 보완이 되고, 장점은 새로운 차원에서 실현되고 부각될 수 있다. 현대적 재료(구축법)와의 결합을 통해 아름다운 차차시, 목구조, 창호를 통한 풍경과의 조화 등 한옥의 아름다운 면이 마음껏 잘 드러날 수 있고, 기능적인 측면(설비)의 어려움이나 단층에 적합한 구조 등의 단점은 어렵지 않게 보완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한옥은 그 자체의 완결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건물이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설비, 부분적 구조)들은 현대적 구축법, 재료가 도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사이트의 상황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한옥의 요소들을 콘크리트(현대적 구축법, 재료 중 선택)와 결합하여 새로운 한옥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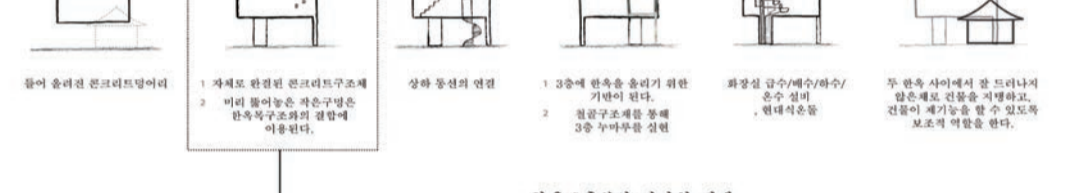


한옥은 계속해서 한옥이 아니다. 그리고 '한옥은 무엇이다.' 라는 명제는 없다. 그저 그때 그 시대와 상황, 생활양식, 건축기술의 진보에 걸맞게, 그리고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한옥의 맛과 지혜를 이어간것으로 지어지면 그것은 한옥이된다. 계속해서 그 진가는 다른.



한옥과 콘크리트의 만남/ 콘크리트 구조체의 역할

두께의 한옥사이제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체는 한옥을 더욱 단단하고 한옥이 원래의 생활양식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풍동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옥의 아름다움 속에 숨어서 잘 들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크기는 하지만 건물이 적응하기 위한 요소들(설비, 제단, 화강질, 현대적 문물) 전부 갖추고 있다. 또한 한옥구조체를 3층에 올려놓음으로써 주변의 높은 건물과의 시야(인왕산, 북악산)를 열어준다.



한옥 3층부와 마당 풍경



한옥 1층부와 마당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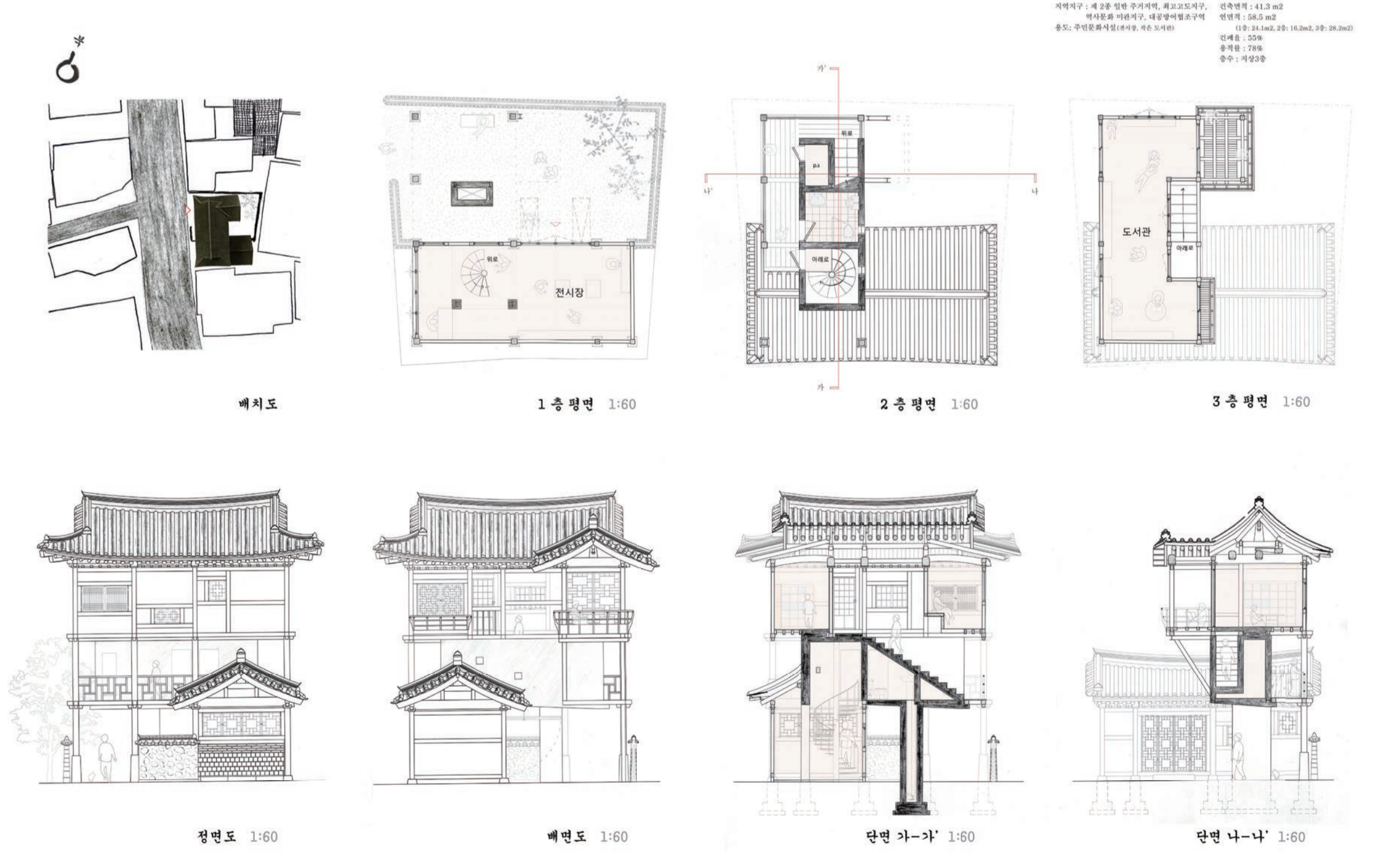


한옥 1층부



마당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평소엔 경행해 보지 못하던 민속놀이나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도면



건축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154-10번지	토지면적: 75.3 m ²
지역지구: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최고도도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대안마을지구	건축면적: 41.3 m ²
용도: 주민문화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연면적: 58.5 m ²
	(1층: 24.1m ² , 2층: 16.2m ² , 3층: 28.2m ²)
	건폐율: 55%
	용적률: 78%
	층수: 지상3층

왜 한옥인가?
 한옥은 아름답다. 지혜로운 건축이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대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기존 한옥의 여러 요소들은 다른 재료, 구축법과 결합함으로써 단점은 보완이 되고, 장점은 새로운 차원에서 실현되고 부각될 수 있다. 현대적 재료 및 구축법과의 결합을 통해 아름다운 차차시, 목구조, 창호를 통한 풍경과의 조화 등 한옥의 아름다운 면이 마음껏 잘 드러날 수 있고, 기능적인 측면(설비)의 어려움이나 단층에 적합한 구조 등의 단점은 어렵지 않게 보완될 수 있다.

한옥과 콘크리트(현대적 구축법)의 만남
 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시촌의 지역적, 물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주변과도 잘 어울린다는 점과 한옥목구조와의 만남의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형태로의 성형이 쉬운 점 때문이다.

프로그램
 현재 시촌에는 시촌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부족하다. 외부인들을 위한 외부인에 의한 갤러리 혹은 카페 등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촌에 시촌민들에 의한 시촌민을 위한 작은 문화시설을 제안한다.

한옥의 입체적 풍경

수상자 : 김윤수, 조인경, 임수경, 김 완 (일본)

한옥의 입체적 풍경 ; 적층된 마당

I. 西村 [서촌풍경]

서촌의 한옥은 서울의 다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과 달리 한옥 축적의 건축적 기지는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의 군집에 의한 입체적 풍경을 그 특색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옛 정취를 느끼고 싶은 대중과 문화적 특이성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서촌은 역사도시 서울의 오래된 속살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한옥의 가치는 옛것과 도시계획, 도로로 단절되어 발생하므로 벗어나는 다른 길의 길이 만나는 서촌의 풍상공간이다. 이 곳에 한옥 밀집지역인 서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레의 프로그램을 가진 복합공간을 제안한다.

1. 한옥을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레의 휴식처
3. 한옥의 정수를 담은 한옥 정보센터
4. 관광객을 위한 한옥에이안센터

한옥에이안센터는 한옥의 정수를 담은 한옥 정보센터와 한옥에이안센터로 구성된다.



II. 新韓屋? [신한옥?]

마당을 만드는 집합체

본 계획에서는 서촌의 기존규모와 도시계획에 의해 생긴 절단되어 생긴 삼각형 부지에 주목한다.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절단된 대지는 옛 가로와 새로운 거리가 만나는 접점이 되어서 대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서촌의 중심적 위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얻었다.

서촌의 새로운 중심이 될 대지에 우리는 기존의 주민과 새로이 유입되는 방문객과 외국인을 두 성격이 다른 이들에게 모두 필요한 복합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촌은 상업적인 문화시설과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며, 한옥의 군집이 이루는 정취는 있지만 개별 건축물의 노후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한옥의 체험시설과 정보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주민을 위한 주민회관 또는 주민자치 문화센터와 외국인을 위한 한옥체험시설 또는 한스타일 인포센터/아카이브를 제안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좌식/입식의 두 가지 생활방식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한식의 체험과 한스타일의 정보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입체대마당

우리가 제안하는 신한옥의 첫 번째 전략은 한옥의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요소의 적용이다. 이를 위해 한옥의 복식을 통해 입체적, 마당, 담이라는 3가지 요소를 주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한옥의 공간을 계획한다.

한옥의 마당은 예의 행사가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며, 보이지 않던 계층을 근간으로 하는 공간이었다. 한옥의 실내공간은 규모와 쓰임에 있어서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 둘러싸인 마당을 통해 다양한 행위가 가능하였다. 마당은 이렇듯 다양한 행위를 담는 그릇이었다.

한옥의 마당은 예의 행사가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며, 보이지 않던 계층을 근간으로 하는 공간이었다. 한옥의 실내공간은 규모와 쓰임에 있어서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 둘러싸인 마당을 통해 다양한 행위가 가능하였다. 마당은 이렇듯 다양한 행위를 담는 그릇이었다.

한옥의 마당은 예의 행사가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며, 보이지 않던 계층을 근간으로 하는 공간이었다. 한옥의 실내공간은 규모와 쓰임에 있어서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 둘러싸인 마당을 통해 다양한 행위가 가능하였다. 마당은 이렇듯 다양한 행위를 담는 그릇이었다.

- 1층 평면도 (S = 1 : 150)

- 2층 평면도 (S=1:200)

- 3층 평면도 (S=1:200)

III. 空間體驗! [공간체험]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공간적 제안

1. 좌식 전통공간을 위한 제안

한옥의 전통공간인 마당, 마루, 방을 시스템 유니트로 구성하여 각 생활공간에서 마루와 마당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환관, 부엌, 화장실 등은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

서비스 영역과 생활공간은 **빛마루**를 현대화된 갤러리를 이용하여 순환선으로 연결

갤러리는 계층에 따라 내부부의 공간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전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존 한옥에서의 생활의 방식에 극대화 하며, 불편함을 최소화

2. 입식 문화공간을 위한 제안

한옥의 고층화를 계획하며 우리는 한옥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일요한 한옥 스타일로 꾸미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입체마당**을 제안한다.

입체마당

- 다양한 생활공간이었던 마당을 적층시켜 다용도공간, 수직통선, 로비 등 현대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배치
- 마당을 통해 진입하고 생활하고 소통하는 한옥의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장
- 입체마당에 의해 한옥의 평면은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해지며 전통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유지

3. 풍경을 만드는 마당과 마루

풍경마당 / 행위마당

한옥은 마당이 있는 집이다. 전통한옥에 존재했던 행위마당, 안마당, 사랑마당 등 각기 성격이 있었던 마당들은 한옥의 도시와 과정에서 도시적 특성에 맞추어 축소 집약되었다.

본 계획에서는 **행위마당**의 공간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마당을 배치하여 마당에 의해 드러나는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구제하며, 이를 통해 신한옥이 가져야 하는 외부공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행위마당

- 한국전통의 공간으로 조경으로 재워져 스스로 풍경이 되는 정원과 같은 성격이 다르다 그 너머의 풍경을 가져오는 장차적 공간
- 행위마당
- 한옥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내부공간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다양한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내부공간의 연속적 공간이며 확장적 공간

재움을 상상하는 마루

- 마루는 마당과 마주하는 공간으로 실내공간이며 외부공간인 중의적 공간
- 계획된 사랑마루, 대정마루, 누각마루는 각각의 마당을 조망하는 휴식의 공간
- 마루 자체가 무대가 되는 중심적 공간의 역할
- 보이지 않던 재움을 상상하게 만드는 공간이 가지는 신한옥을 제안

- 단면도 (S = 1 : 100)

보행로, 소나무마당(풍경마당), 한옥체험마당(행위마당), 입체마당, 연못마당(풍경마당), 입점대지

서촌은 옛 정취를 느끼고 싶은 대중과 문화적 특이성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역사도시 서울의 오래된 속살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본 계획은 서촌의 기존규모와 도시계획에 의해 절단되어 생긴 삼각형 부지에 주목한다.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절단된 대지는 옛 가로와 새로운 거리가 만나는 접점이 되어서 대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서촌의 중심적 위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얻었다.

서촌의 새로운 중심이 될 대지에 우리는 기존의 주민과 새로이 유입되는 외국인과 외국인들 두 성격이 다른 이들에게 모두 필요한 복합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촌은 상업적인 문화시설이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며, 한옥의 군집이 이루는 정취는 있지만 개별 건축물의 노후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한옥의 체험시설과 정보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주민을 위한 주민회관 또는 주민자치 문화센터와 외국인을 위한 한옥체험시설 또는 한스타일 인포센터/아카이브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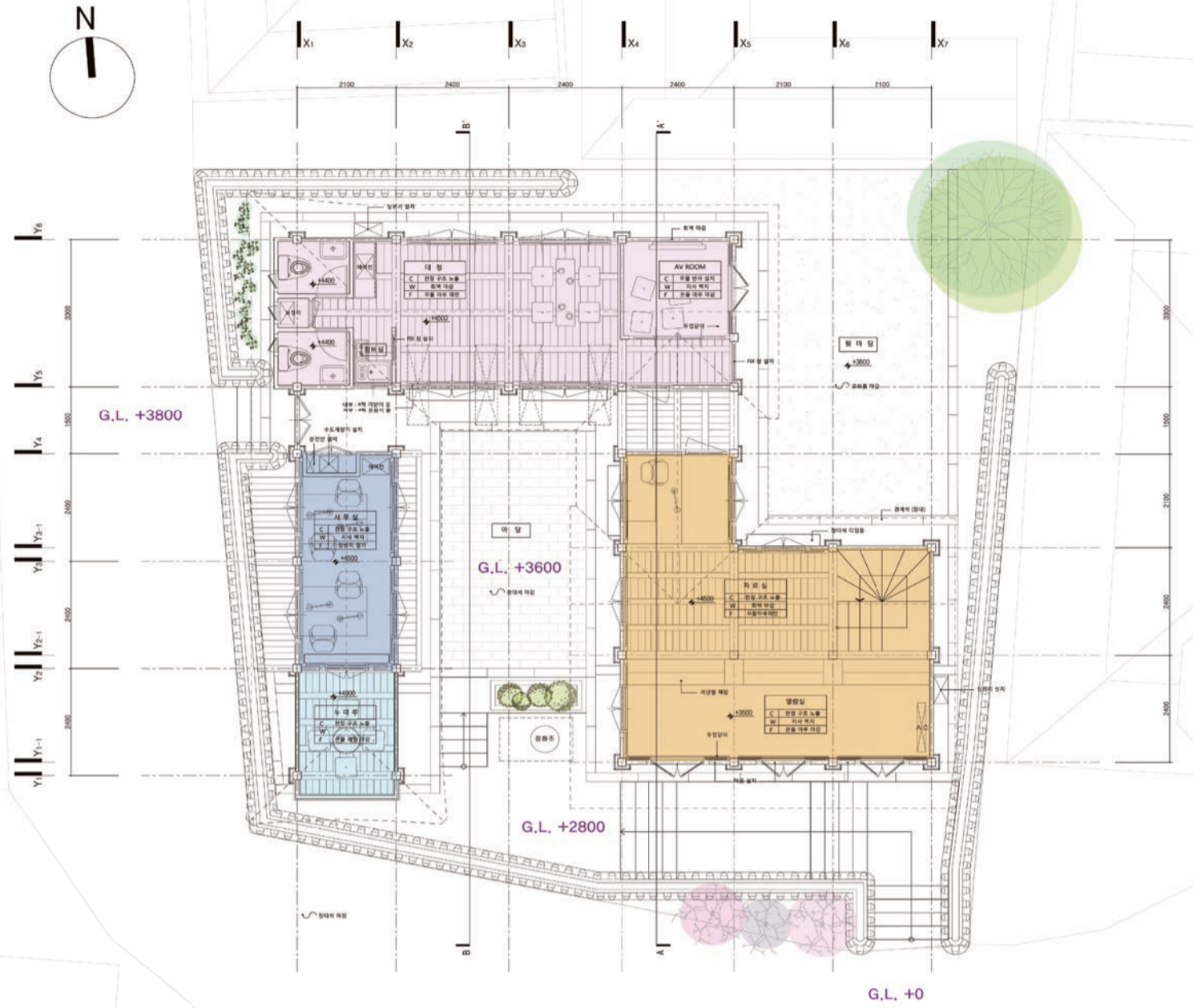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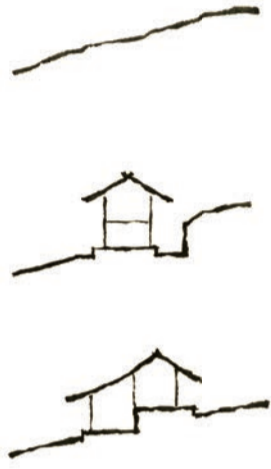
이러한 시설들은 좌식/입식의 두 가지 생활방식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한식의 체험과 한스타일의 정보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소요현 (消遙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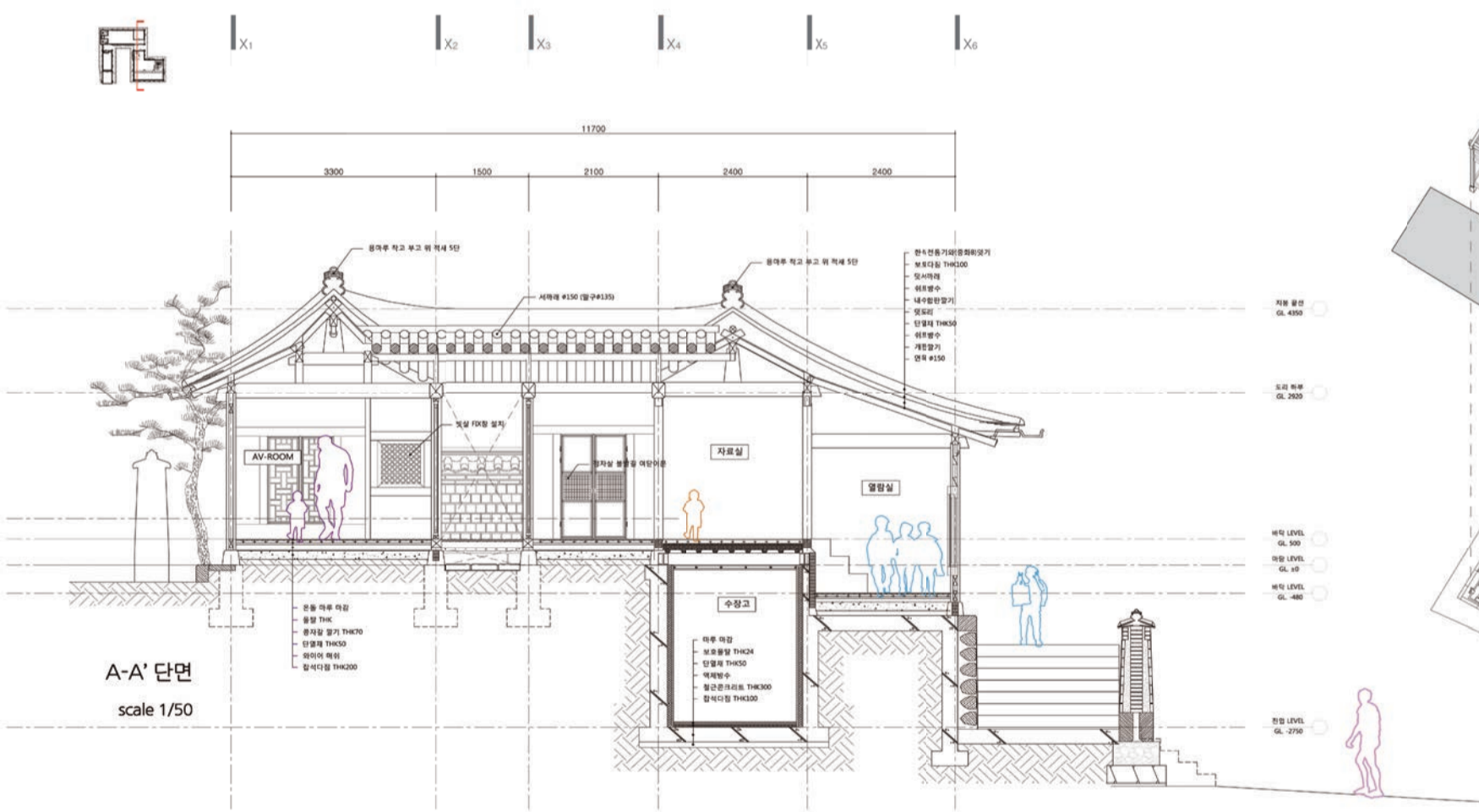
수상자 : 정희태 (일반)

消遙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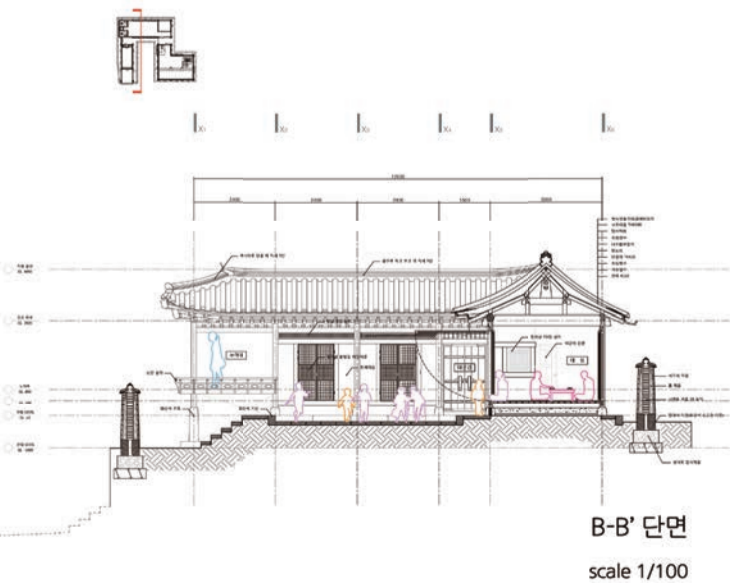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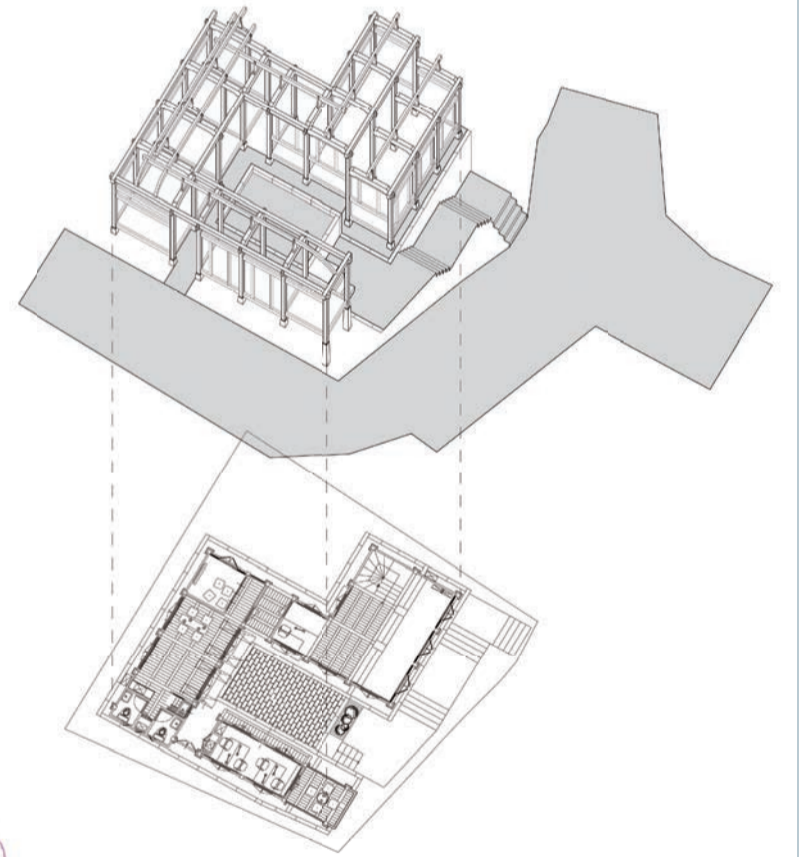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인 한옥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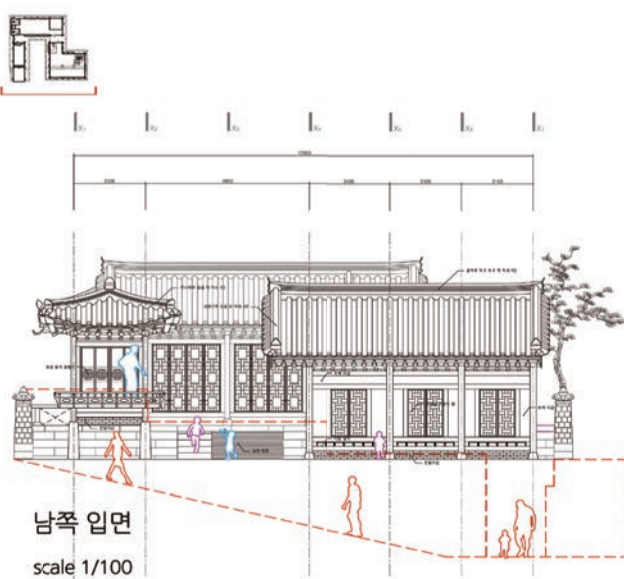
평면도 scale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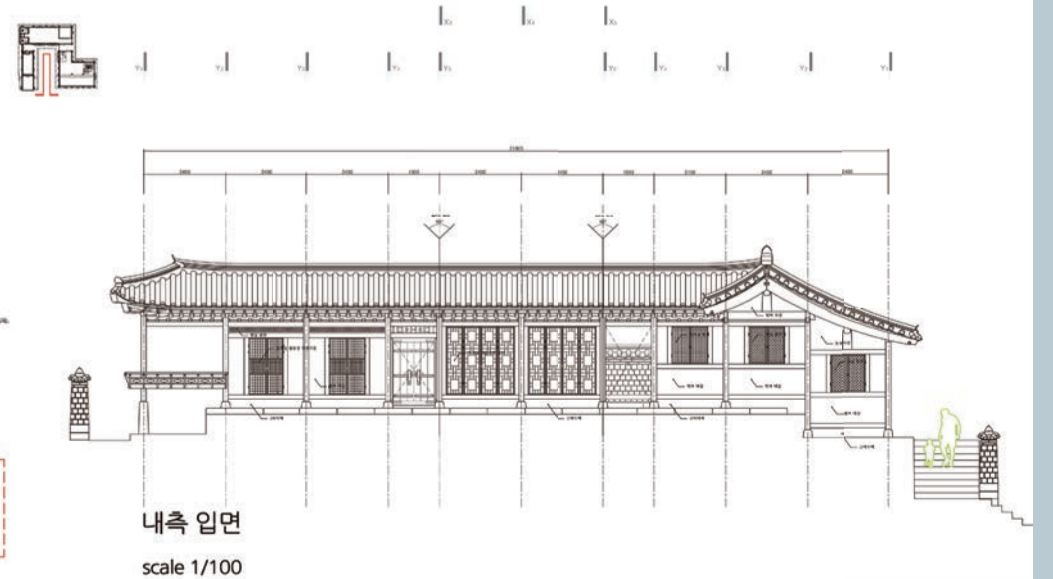
A-A' 단면 scale 1/50



B-B' 단면 scale 1/100



남쪽 입면 scale 1/100



내측 입면 scale 1/100

도시건축의 특성상 하나의 필지에 다른 유형의 개발압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로 인한 중정에 대한 조망문제와 고층개발압력은 블록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쉽다. ...

산책(출처 동아새국어사전 제4판)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집처럼 머물 수 있는 지역에 열린 공간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뜻을 가진 건물이다. 블록 내 급격한 레벨 변화를 극복한 필지에 타인의 접근이 가능하면 이는 거주민들에게 있어 경관의 확장이다. ...

'칸' for sale

수상자 : 윤지애, 정성하 (홍익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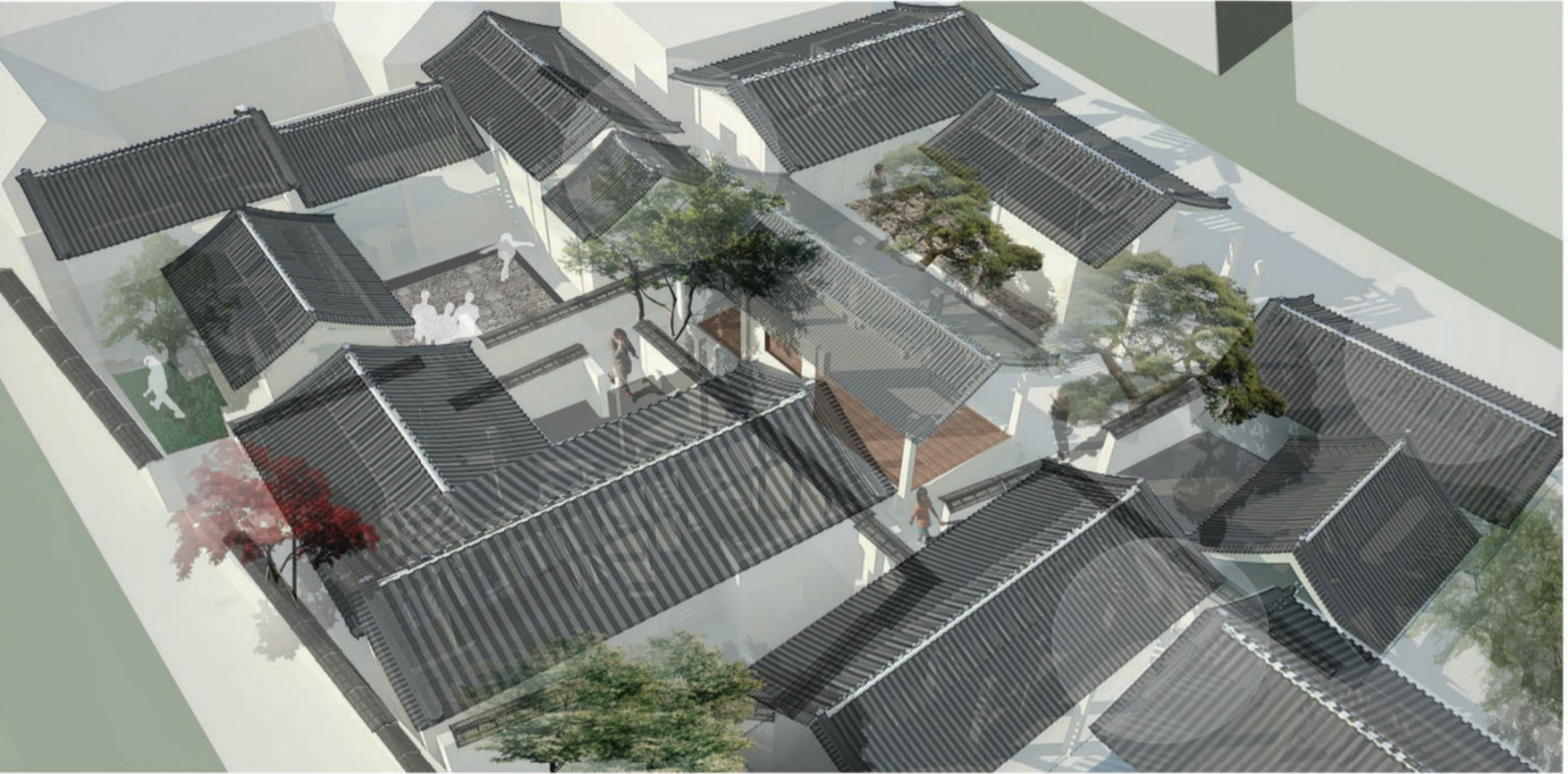


세종은 조선시대와 근대의 문명, 건축,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는 경제 발전과 주자 집현당이 세운 학교, 근대에는 화기 여당과 대성문, 서민 운동추진회, 의정부, 직사각형 건축기법 등을 통해 세운 주공주택이다. 세종에는 6개의 다양한 집의 타입이 남아 있다.

콘크리트 빌딩 벽도 오래된 기층 지붕을 갖춘 한옥의 골격이다. 하지만 동시에 낮은 일층의 2~3층 골짜기 양쪽을 가로지르는 입면의 느낌을 준다. 3층짜리 빌딩 벽과 매끄러운 모서리,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를 대립시킨다.

세종시는 2000년대 '젊은 가족' 시대를 통해 33채를 세우는 한옥주택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3채의 대안 집을 고치는 비용은 지붕의 무게와 한옥의 1000평의 한옥이 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과 지붕은 한옥을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건물 사용이 많은 200년 이상을 유지하여 이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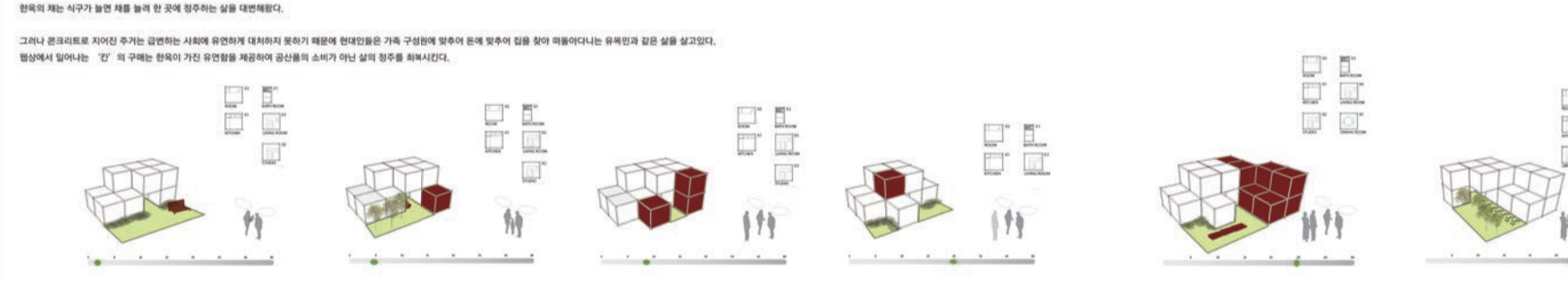
높이 17미터에서 일층과 일층의 사이에 위치한 지붕으로서 골격 벽과 일층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서 골격 벽의 무게가 모든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여 골격 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건물 사용이 많은 200년 이상을 유지하여 이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STEP 3. 재료의 진화 _ Recycling



STEP 4. 정주의 회복 _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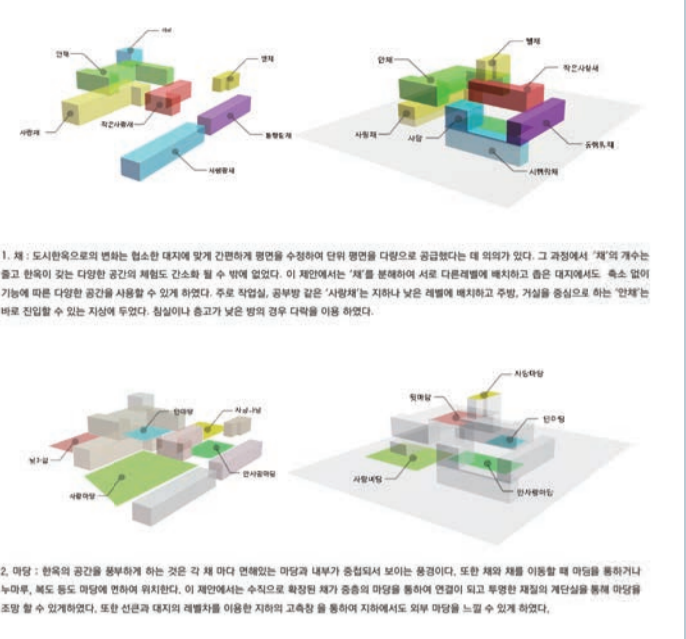
STEP 5. 한옥의 무상 _ Shap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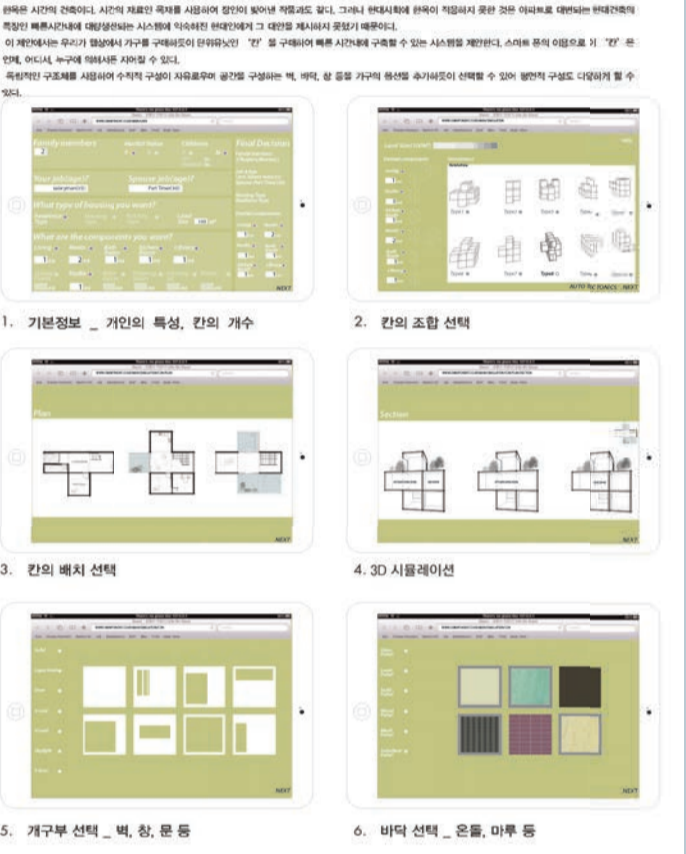
STEP 7. Plan



STEP 1. 공간의 진화 _ 수직적 결합



STEP 2. 구축의 진화 _ Web device



STEP 6. '칸'의 모듈화 _ Module



STEP 1. 공간의 진화 _ 채와 마당의 수직적 재구성: '사랑채'는 지하나 낮은 레벨에 배치하고 거실, 주방의 기능을 하는 '안채'는 지상 레벨, 침실 등은 다락을 이용하였다. 수직으로 확장된 채는 중층의 마당을 통하여 연결되고 투명한 채질의 계단실을 통하여 마당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선긋고 대지의 레벨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하에서도 외부 마당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STEP 2. 구축의 진화 _ Web device: 우리가 웹상에서 가구를 구매하듯이 단위유닛인 '칸'을 구매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STEP 3. 재료의 진화 _ Recycling: '칸'은 가구와 같이 주문과 동시에 공장에서 생산되어 대지로 배달된다. 사용되고 난 후 부재들은 재가공 되어 다시 사용될 수 있다.

STEP 4. 정주의 회복 _ Growth: 웹상에서 일어나는 '칸'의 구매는 채의 변화가 가지는 한옥의 유엔함을 현대사회의 가족구성원에 맞게끔 소형화 된 시스템으로 가족이 한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의 제안을 통해 삶의 정수를 회복시킨다.

STEP 5. 한옥의 무상 _ Shapless: 이 제안에서 한옥은 형태가 없다. '칸'의 유연한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6개의 필지에 지어진 6개의 집은 6채가 될 수도, 7채가 될 수도 있다. 한 채를 이루고 있는 7~8개의 칸은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하여 다른 가구가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반쯤시킬 수도 있다.

한옥의, 한옥에 의한, 한옥을 위한

(통의동의 정체성을 고려한 서촌 한옥마을 내 공방형 주거 계획)

수상자 : 박슬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옥의, 한옥에 의한, 한옥을 위한,

통의동의 정체성을 고려한 서촌 한옥마을 내 공방형 주거 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지하로10길 24호 일대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 약 2,280㎡
연면적 : 약 2,605㎡
용적률 : 114.2%
건폐율 : 61.2%



진화하는 한옥?

전통 한옥과 육중한 모더니즘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진화하는 한옥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한옥과 모더니즘을 아우르는 한옥의 공간 구성 요소 중 현대에도 장점을 얻을 수 있는 한옥의 방법을 부각시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러한 방법은 계획대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런 새로운 한옥이라고 해도 진화하는 한옥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통의동에서 개발의 바람이 부는 한옥 마을 일대에 한옥과 결합이 있는 곳에 새로운 한옥의 건축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옥의 진화가능성을 살리면 되나?

한옥의 특징 중 주거로서 장점이 되는 기능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진화방법일 것이다. 또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배가 시키는 디자인적 진화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미감론 진화가능성을 가지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양으로의 한옥, 또는 한옥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옥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제시된 계획은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

한옥이 필요에 의해 진화하고 한옥을 존중하며 더불어 존재한다.

새롭게 제안하는 신한옥은 집안 길을 통해서 주거공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새롭게 재해석한 한옥의 마당을 통해 그 커뮤니티는 거주자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진다. 길과 방의 경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사용자에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하며, 그 용량은 시간의 흐름을 담아 내는 듯 변화한다. 비록 그 형태는 한옥의 형태와 전혀 다르지만 공간 구성과 공간의 활용, 그리고 그 입면이 한옥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한옥을 가장 존중하고 한옥의 정신을 담아 낼 수 있는 계획을 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의동 한옥마을의 한옥을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면서 현재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방형 주거를 계획함으로써 통의동은 진화하는 한옥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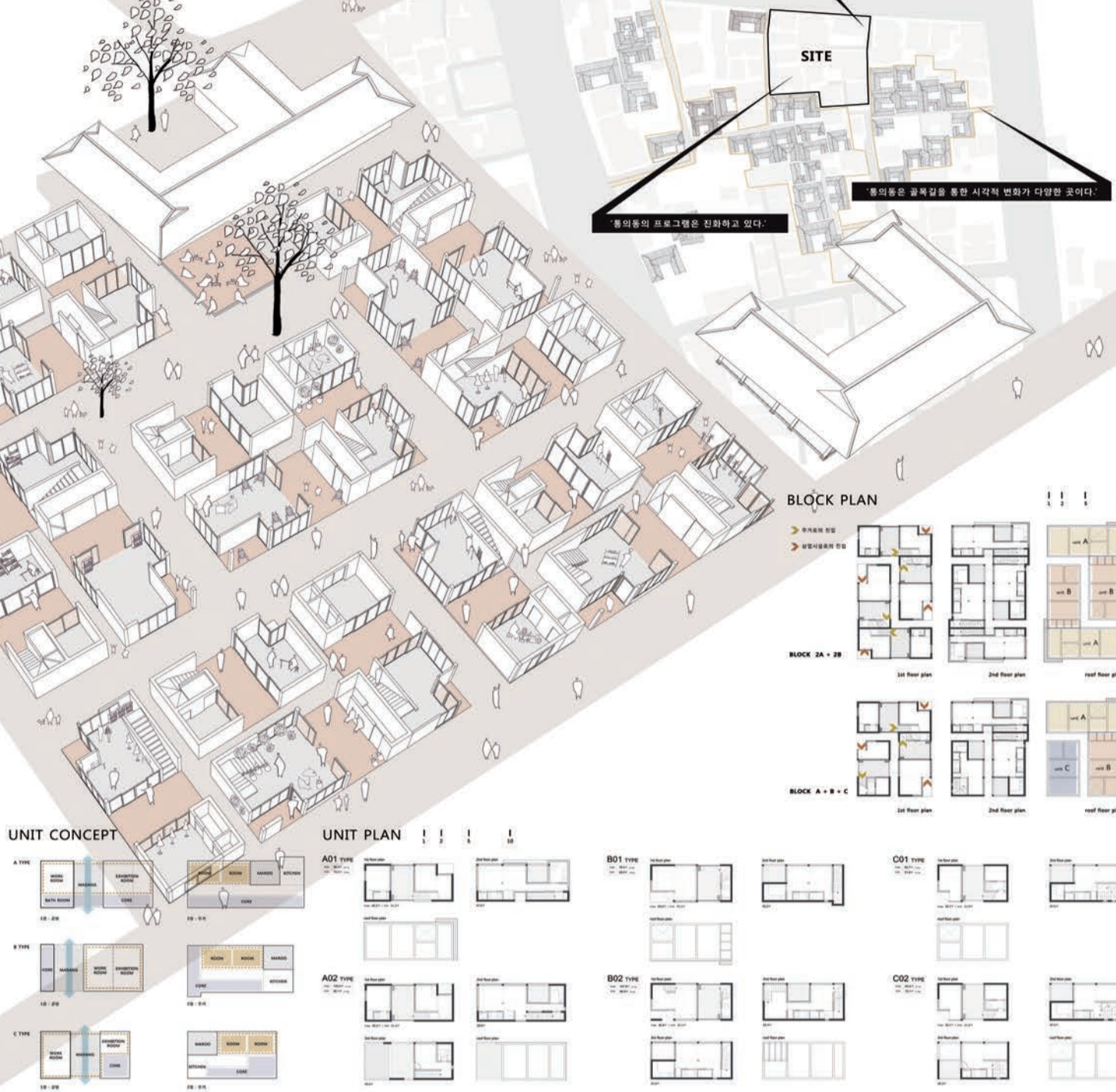
서울의 한옥 13,700 여 채 20.7%
서촌의 한옥 660 여 채

서촌 한옥마을 '통의동'

통의동은 한옥을 비롯 보존해야 할 건축물이 다양한 곳이다.

통의동은 골목길을 통한 시각적 변화가 다양한 곳이다.

통의동의 프로그램은 진화하고 있다.



SITE PLAN PROCESS

1. 계획 대지와 주변 환경의 관계 분석
2. 대지 주변의 한옥과의 관계 분석
3. 통의동의 골목길을 통해 골목길의 흐름 연결
4. 골목길의 흐름을 고려한 골목길 주거 블록의 적용
5. 집안 길로 주거 블록을 연결하고 대지 내부의 골목길 확장
6. 주거 블록 내 마당에 골목길과 집안 길을 연결 그 관계는 변이수용 가능
- final.

strategy 둘 : 한옥의 길-마당-마루-방의 경계의 유희성

과거의 한옥은 일에서 막장으로, 막장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방까지 그 공간의 사이의 경계는 매우 유희적이었다. 완전한 공적 공간인 길과 사적 공간인 방의 경계를 열고 닫음으로써 길과 방의 경계가 확장되거나 축소되어 일정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서촌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개방과 전시, 주거의 각 단계가 시간대 별로 열고 닫음으로써 길에서부터 전시, 작업실, 마루를 사적인 공간이 되기까지 하고 일어서 일하게 한다.



통의동의 신한옥, 공방형 주거를 위한 5가지 전략

strategy 하나 : 한옥을 존중할 수 있는 건축적 방법 사용

현재 서촌의 정체성인 한옥을 비롯한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주거지는 신한옥은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중심적 성격을 가지는 건축물을 계획함으로써 보존하고자 하는 한옥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동질적인 건축물이 융어센스로써 통의동의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strategy 셋 : 신한옥 블록 내 커뮤니티를 잇는 '집안 길'

주거 블록 내 공방형 주거를 한옥의 '재'의 개념을 적용, 여의 배치하고 각 주거를 연결 할 수 있는 '집안 길'이라고 부르는 작은 골목길을 삽입하여 주거 블록의 커뮤니티를 유도한다. 각 공방형 주거들은 1층에 마당을 가지고 그 마당은 집안 길로 인해 하나로 엮이게 되고 골목길과 집안길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마당의 경계는 각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열고 닫음으로써 주거 블록 벽을 벽의 골목길과 집안 길을 연결하여 최대한 길이가 될 경우 커뮤니티를 유도하여 1층 전체의 개방을 깊게 한다.

strategy 넷 : 한옥의 '간'의 사용과 목구조의 장점 부각

한옥의 목구조의 장점인 최소 필요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주거지에 적용한다. 그 방법으로 고층적 요소가 필요한 시설을 벽식으로 하여 각 주거 유닛의 구조체로서 역할 하도록 하고 이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구조를 결합하여 나머지 공간을 연도에 따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1층 공용 작업실과 전시, 판매의 기능으로 활용하지만 창호의 열고 닫음으로써 하나의 공간이 되거나 각각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유도한다. 2층의 주거 공간 또한 방을 이루는 부속의 칸 사이에 마루 칸을 같이 만들어 공용 및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간대별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strategy 다섯 : 대지를 포함한 주변 골목길의 흐름 연결

현재 대지와 대지 주변의 골목길의 형태와 흐름을 분석하고 흐름이 잘 연결 골목길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 30m 이상의 길
- 차량 통행가능 방 벽 배면까지 거리
- 2.5m 이상의 골목길
- 지하철 통행가능 방 벽 배면까지 거리
- 1.5m 이상의 골목길
- 두 사용 가능 가능
- 1.5m 이하의 골목길
- 한 사용 가능 가능



한옥이 필요에 의해 진화하고 한옥을 존중하며 더불어 존재한다. 새롭게 제안하는 신한옥은 집안 길을 통해서 주거블록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새롭게 재해석한 한옥의 마당을 통해 그 커뮤니티는 거주자의 삶을 담으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길과 방의 경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며 그 풍경은 시간의 흐름을 담아낸다. 비록 그 형태는 한옥의 형태와 전혀 다르지만 한옥의 공간 구성과 공간의 활용, 그리고 그 입면이 한옥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한옥을 가장 존중하고 한옥의 정신을 담아 낼 수 있는 계획을 하고자 하였다.

통의동의 정체성 1. 통의동은 한옥을 비롯, 보존해야 할 건축물이 다양하다. 2. 통의동의 프로그램은 주거에서 전시, 스튜디오, 상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3. 통의동은 골목길을 통한 시각적 변화가 다양한 곳이다.

전략 1. 한옥을 존중할 수 있는 건축적 방법 사용 2. 한옥의 길-마당-마루-방의 경계의 유희성과 연결 3. 신한옥 블록 '재' 내 커뮤니티를 잇는 '집안 길'의 추가 4. 한옥의 '간'의 개념 사용과 목구조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부각 5. 대지를 포함한 주변 골목길을 분석하고 흐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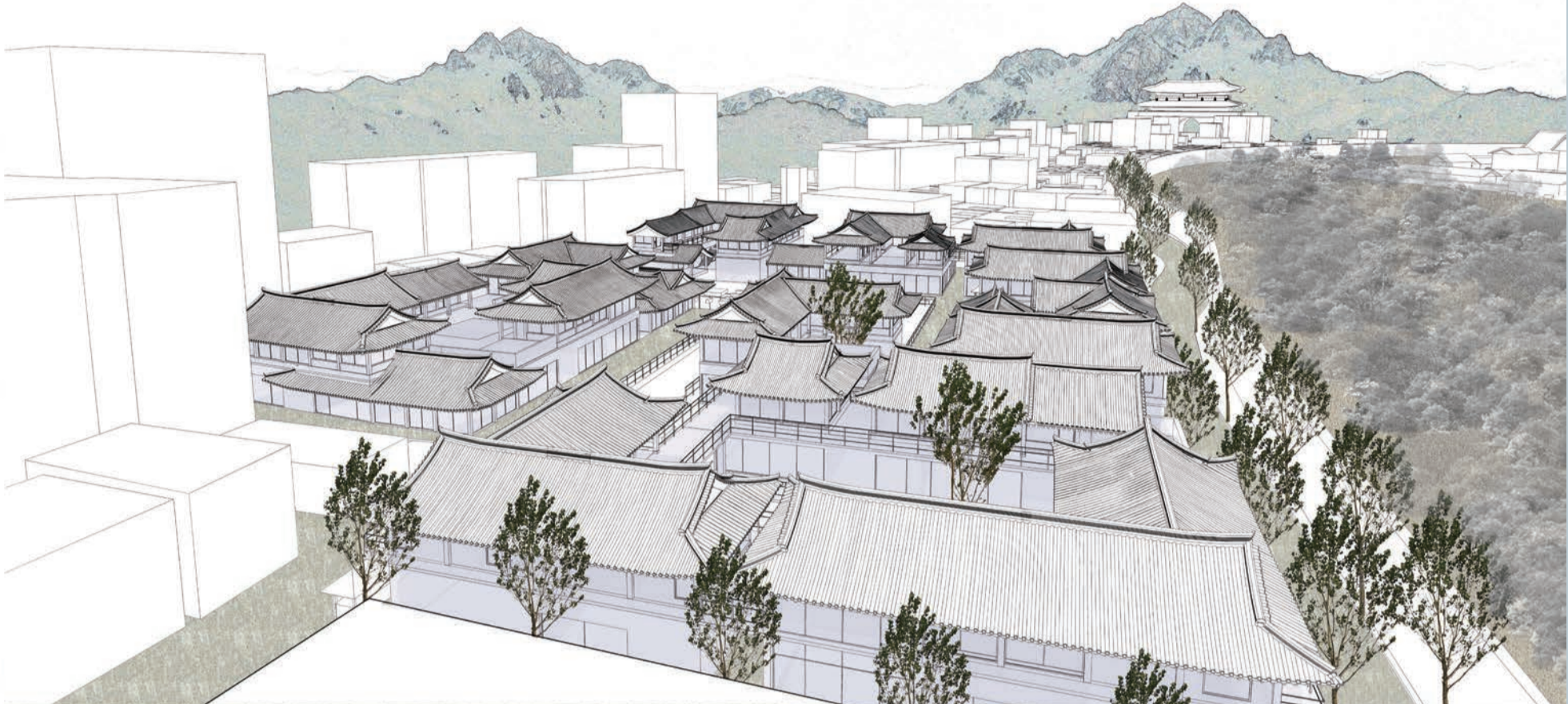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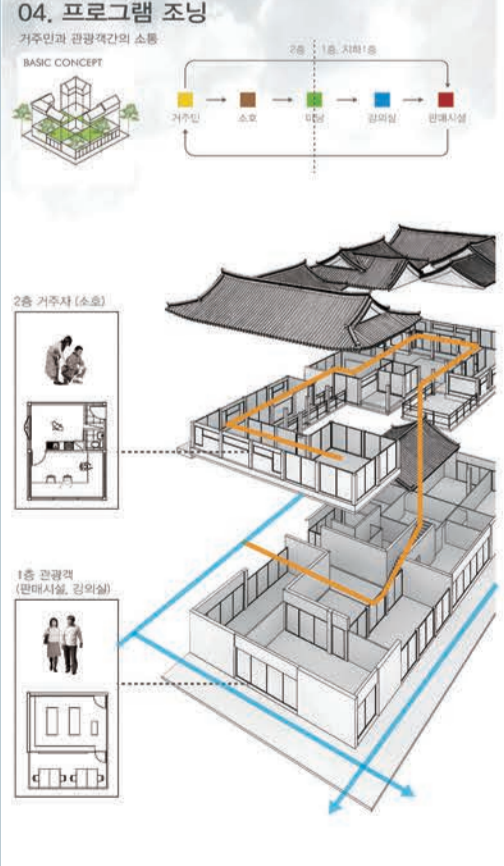
서촌, 통의동 한옥마을의 한옥을 존중하며 현재의 사용자,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옥을 재해석한 공방형 주거를 계획함으로써 통의동은 가장 이상적으로 진화하는 한옥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덕궁과 종묘 사이

수상자 : 박우성 (성균관대학교)

창덕궁과 종묘사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길과 귀금속소호마을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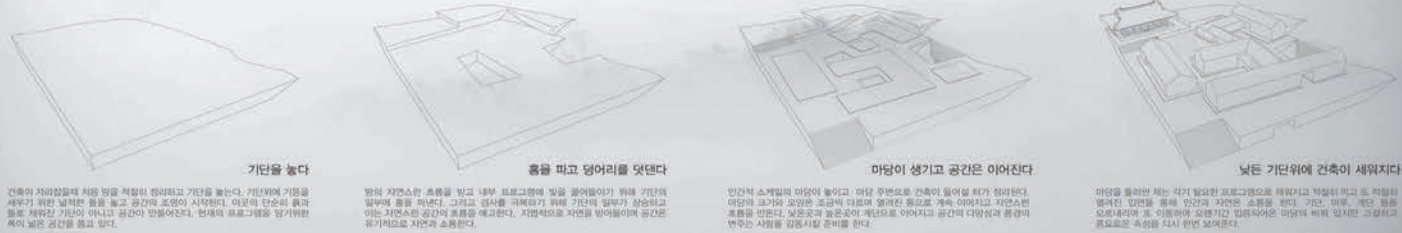
프롤로그
 창덕궁과 종묘라는 역사지역에 속해있는 이곳을 문화와 사람,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이 본 제안의 출발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내부와 외부 경계 허물기
 마을의 중심이 되는 광장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흐름을 계획되는 지역으로 흡수·분배할 수 있는 옛길을 찾고 그 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로의 폭을 확장해주었다. 또한 둔화문로와 순라길을 연결해 주변지역과의 도로망 흐름을 만들었다. 그 후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건물메스를 통합/분절하는 작업을 하였다.

걷고싶은 거리와 마당만들기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좁은 가로를 확장하고 마당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계획하였다. 1층의 건물은 상업화를 위하여 규모를 확장시키고 건물마다 내외부 공간을 규정하였다. 또한 2층은 1층과 주변지역의 맥락에 걸맞은 소호를 연결해준다. 이와 같은 시도가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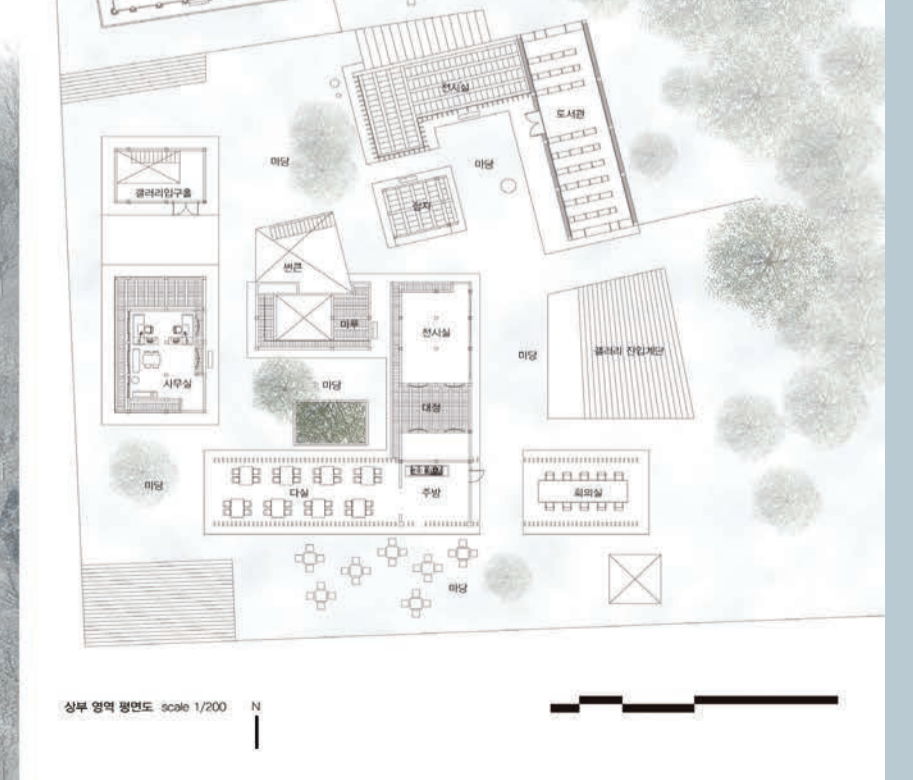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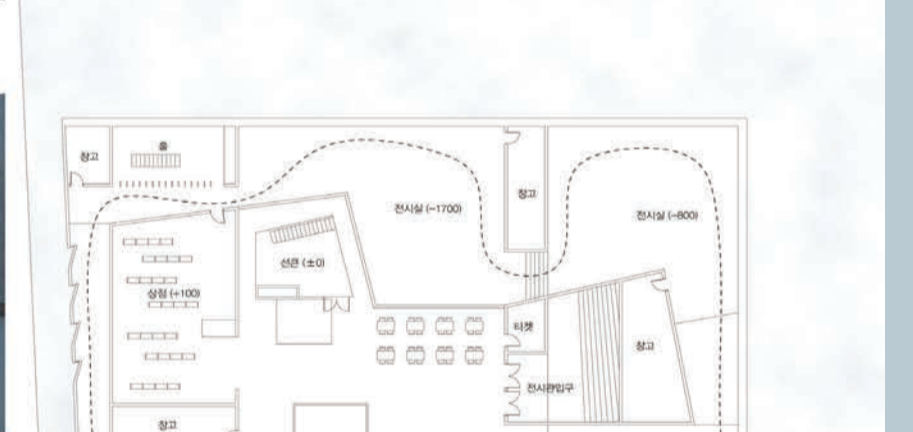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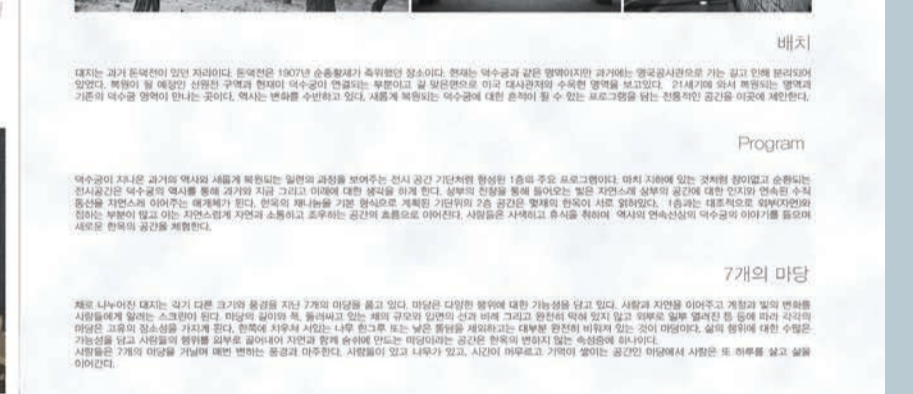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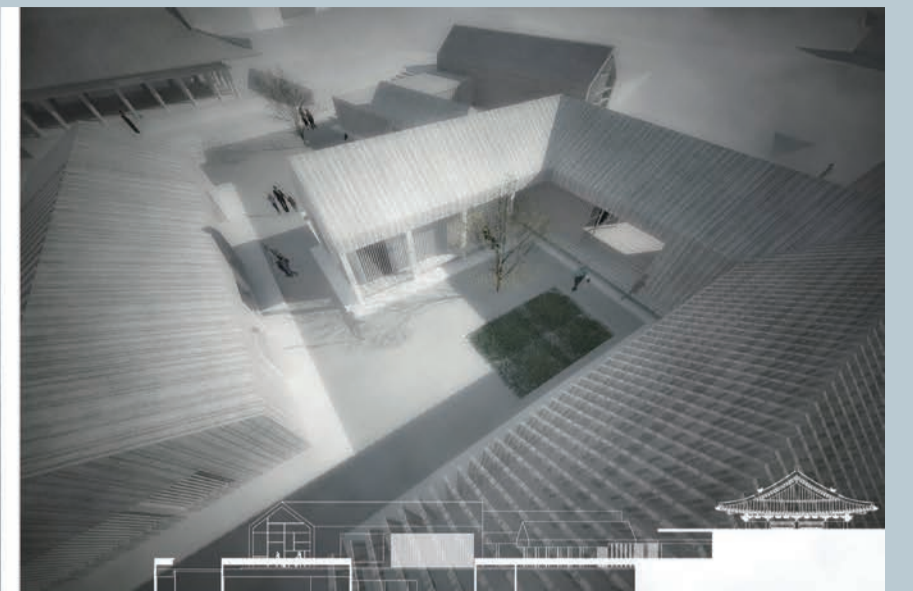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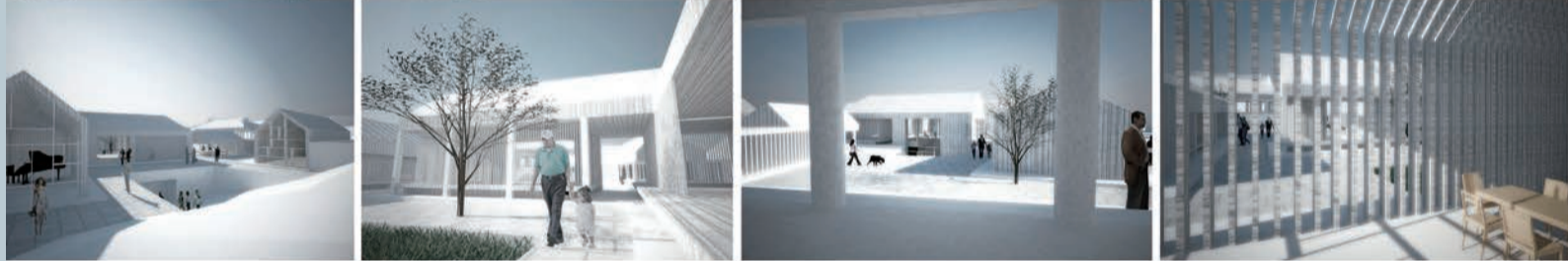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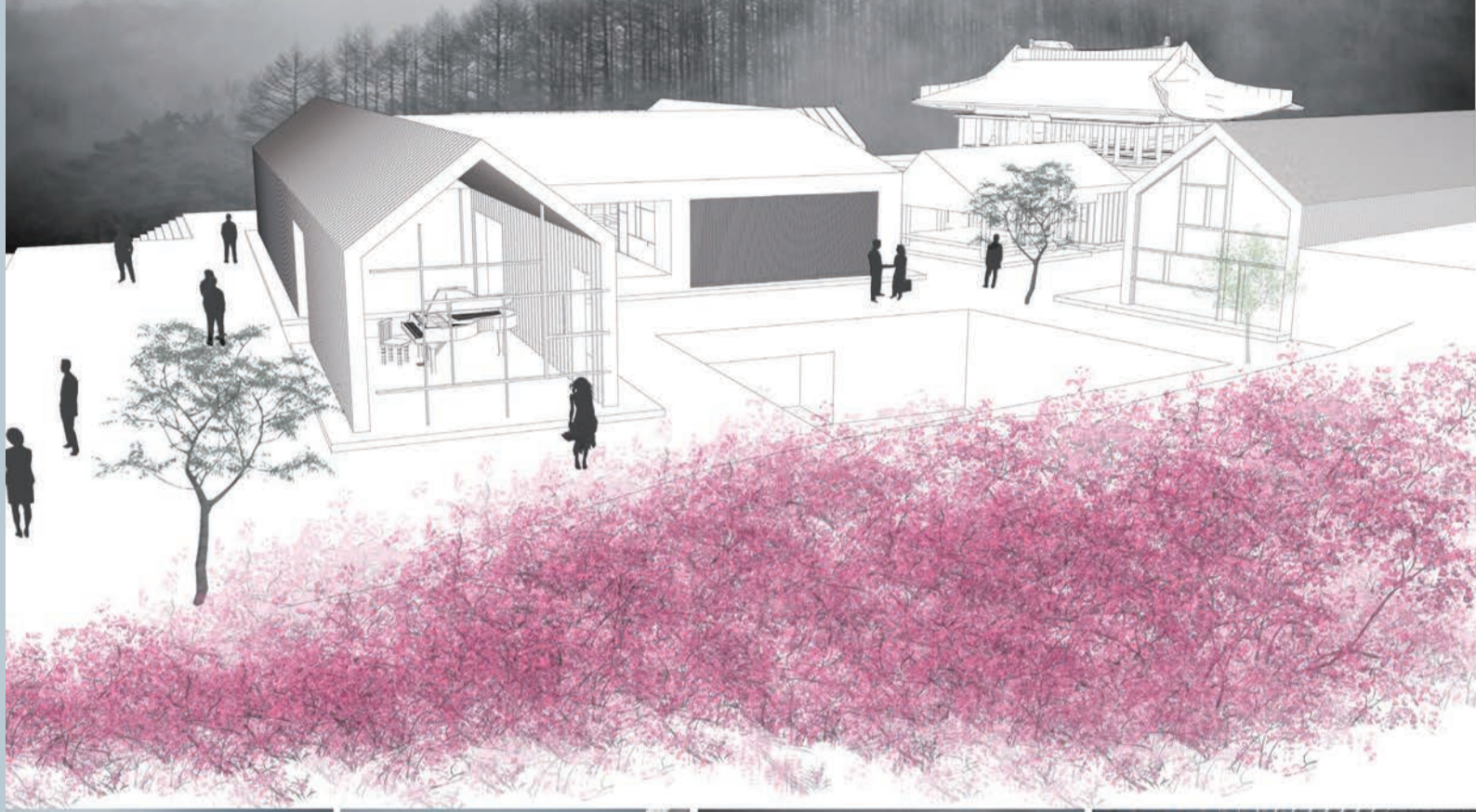
7개의 마당

수상자 : 정우석 (일반)



7개의 마당

책로 나누어진 대지는 각기 다른 크기의 행위를 위한 7개의 마당을 품고 있다. 마당은 다양한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사람과 자연을 스며들고 세우고 놀이 반향을 사뭇하게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마당의 길이나 폭, 높낮이와 같은 요소는 각각의 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조건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행위를 할 때,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시간이 머무르고 가려는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또 하루를 살고 싶어 하겠다.



대지는 과거 순종왕제가 즉위했던 장소인 돈덕적이 있던 자리이다. 새롭게 복원되는 덕수궁에 대한 흔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은 전통적인 공간을 이곳에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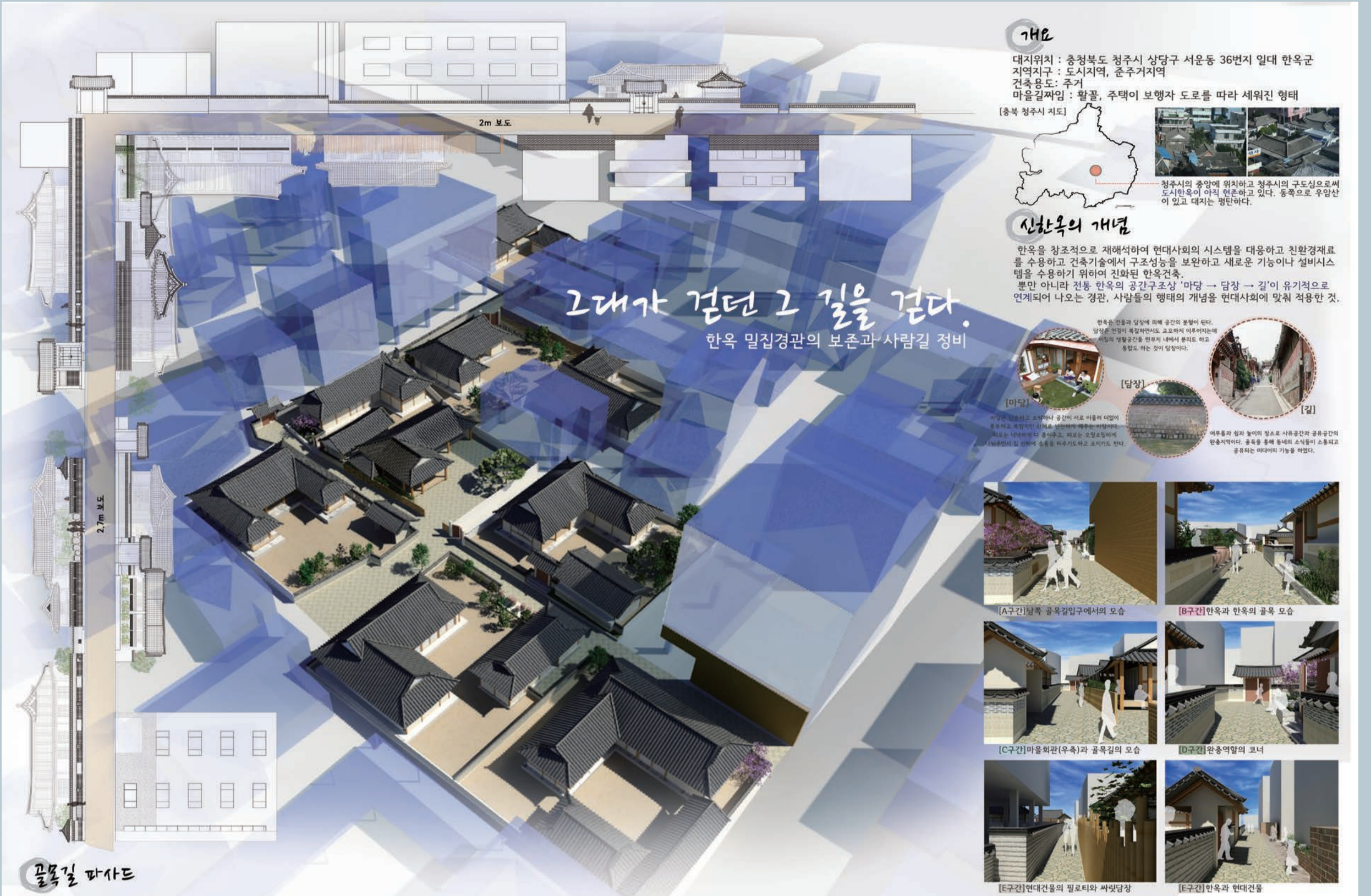
덕수궁의 역사와 복원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1층 전시공간은 마치 지하에 있는 것처럼 창이 없고 순환되는 공간으로 기반처럼 형성되었다. 한옥의 채 나눔을 기본 형식으로 계획된 기반 위의 2층 공간은 몇 개의 한옥이 서로 얽혀있다. 1층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자연)와 접하는 부분이 많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연과 소통하고 조우하는 공간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사색하고 휴식을 취하며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덕수궁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한옥의 공간을 체험한다.

책로 나누어진 대지는 각기 다른 크기와 풍경을 지닌 7개의 마당을 품고 있다. 마당은 다양한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계절과 빛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스크린이 된다. 마당의 길이와 폭, 둘러싸고 있는 채의 규모와 입면의 선과 비례 그리고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외부로 일부 열려진 틈 등에 따라 각각의 마당은 고유의 장소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7개의 마당을 거닐며 매번 변하는 풍경과 마주한다. 사람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시간이 머무르고 기억이 쌓이는 공간인 마당에서 사람은 또 하루를 살고 싶어 하겠다.

그대가 걷던 그 길을 걷다

(한옥 밀집경관의 보존과 사람길 정비)

수상자 : 한승규, 김민혜, 류광현 (청주대학교)



개요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6번지 일대 한옥군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건축용도 : 주거
 마을길짜임 : 활골, 주택이 보행자 도로를 따라 세워진 형태
 [충북 청주시 지도]

신한옥의 개념
 한옥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대용하고 친환경재료를 수용하고 건축기술에서 구조성능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이나 설비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하여 진화된 한옥건축.
 뿐만 아니라 전통 한옥의 공간구조상 '마당 → 담장 → 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오는 경관, 사람들의 행태의 개념을 현대사회에 맞춰 적용한 것.

한옥은 전통과 당시에 의해 공간이 분담이 된다. 담장은 경관이 확장되므로 고려하여 여유있게 배치하며 경관공간의 한쪽 면에서 배치하고 통풍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당] 마당은 전통적으로 소시거나 공기가 서로 어울려 대안이 될 수 있고, 폭염이나 한파를 완화하며 배후를 배양한다. 폭우는 내리사랑의 상징이고, 폭우는 고요함을 준다. [담장] 여유로운 삶과 어울려 장소로 사용공간과 공유공간이 한층 더 깊어진다. 공복을 통해 동선의 소음이 소용되고 공유되는 대안이 되는 기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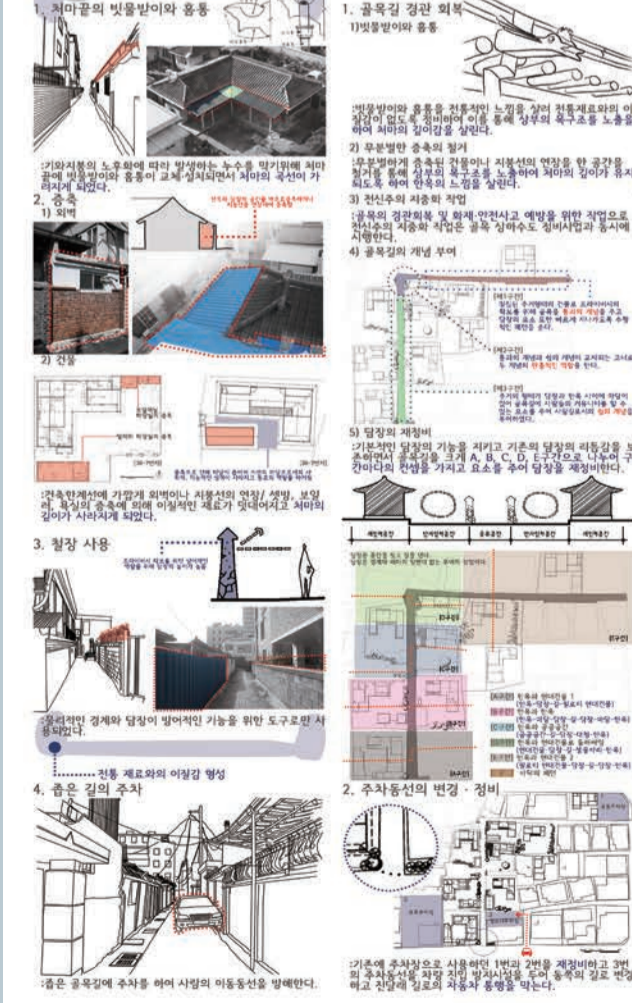


골목길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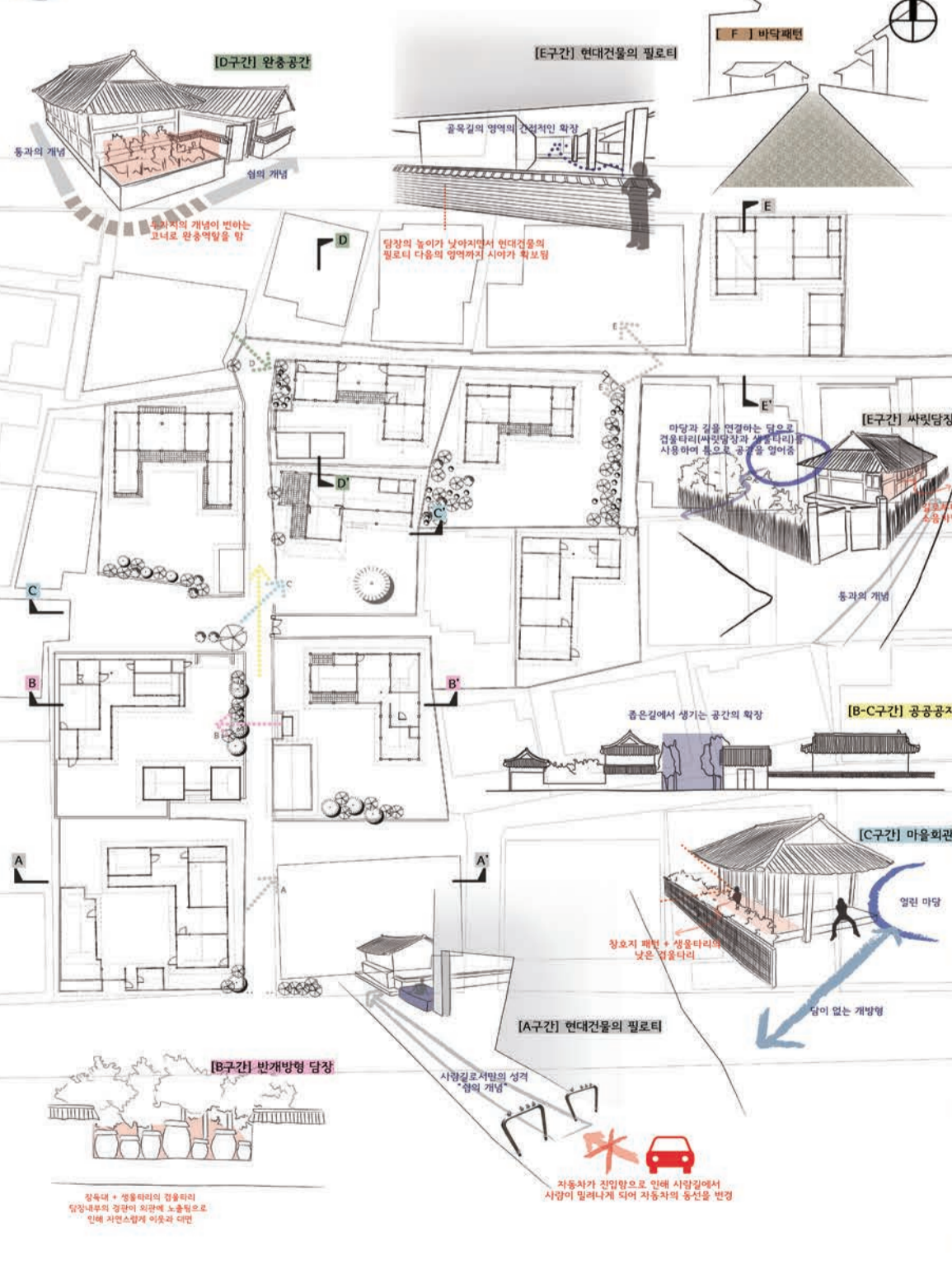
대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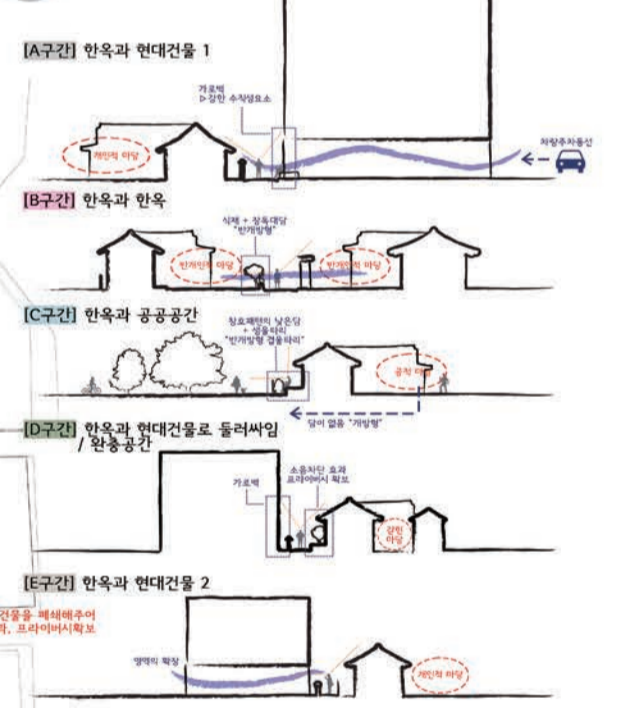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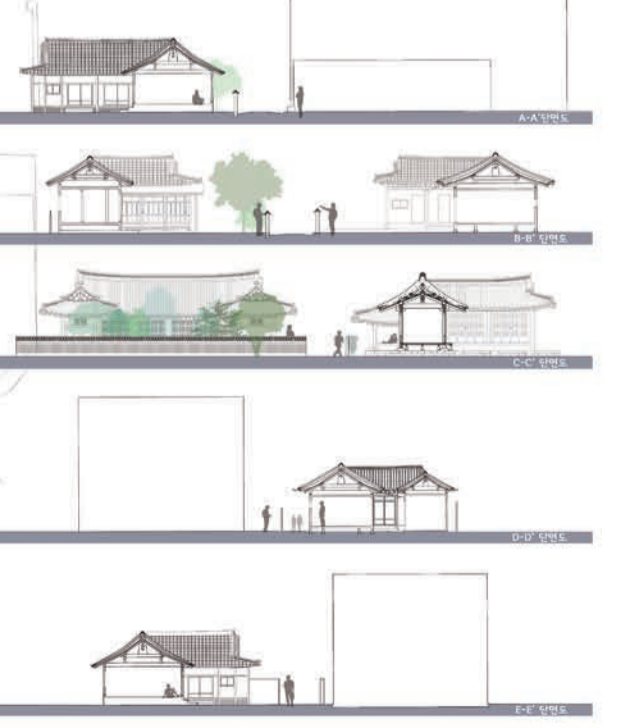
배치 및 평면도 SCALE 1/250



공간개념



단면도 SCALE 1/200



형태적인 맥락과 시간적인 맥락 그리고 한옥의 공간적인 맥락상 마당-담장-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오는 경관을 현대 사회에 맞춰 적용한 것은 진화하는 한옥 건축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간적인 맥락에 따른 도심 속 한옥군의 경관을 회복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공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낮은 창을 통해 연결되는 집안과 밖, 낮은 담장을 통해 보이는 옆집 마당, 대문 앞의 공간 등이 한옥 군에서 보여 지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일면인 것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삶의 현장에서 보여 지는 요소들은 더해지거나 강해지면서 다양한 볼 것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골목의 우연한 곡선, 형태, 공간, 그리고 그들이 갖는 장소성이나 시간성과 함께 풍요로운 경험을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투박하고 답답했던 담장을 낮추고 한옥과 동질감이 형성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변화하는 시각적 투과만이 아니라 시각과 행동의 투과까지 허용되게 해주었으며, 이것에 의해 해당영역이 심리적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이해되게 리듬감을 계획하였다. 조건적으로 골목이라는 공공공간과 주거라는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로 공공영역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적영역 스스로 공적 영역과의 경계를 허물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고, 여유와 문화, 정취, 기억, 냄새, 빛깔, 소리가 담겨있을 때 우리는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을 한다. 기존 대지에 산재해 있던 요소들을 한 공간 안에 체험할 수 있으며 행위와 풍경요소들이 혼합된 길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한옥, 일상으로의 회귀

(신 한옥을 통한 지하철역사 출구 및 주변 환경 개선 계획안)

수상자 : 김민호, 권오상 (일본)

日常 한옥, 일상으로의 회귀

: 신 한옥을 통한 지하철역사 출구 및 주변 환경 개선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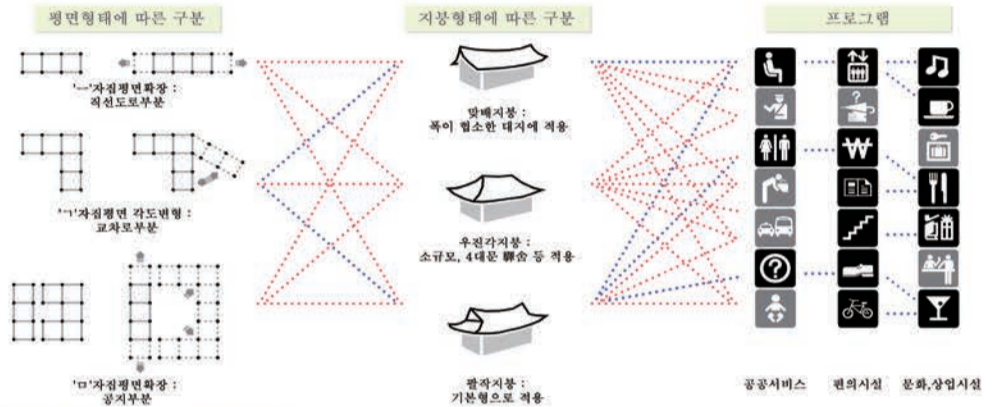


한옥은 원래 우리의 일상의 집이었다. 한옥은 모든 일상의 프로그램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집이었고, 그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었다. 따라서 한옥을 특별한 집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한옥은 원래 일상의 건축이었다.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옥은 소외되어 문화재로 보호받거나 도시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주택으로 끊임없이 재개발의 요구에 시달리며 도시한옥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복원, 시흥 한옥의 재발견과 함께 한옥이 재조명을 받으며, 현대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옥으로 진화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오늘날 한옥이 가져야 할 비전은 한옥의 최소성을 높이거나 전통성의 고취가 아니다. 한옥을 기존인식에의 답습처럼 특별하고 귀한 존재, 보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찾아다니지 않아도,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힘들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하나, 둘 자연스럽게 채워지도록 함으로써, 시상의 건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대 우리의 도시에 신 한옥을 통해서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정취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느끼기를 강요하는 집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배경으로 혹은 주제로 채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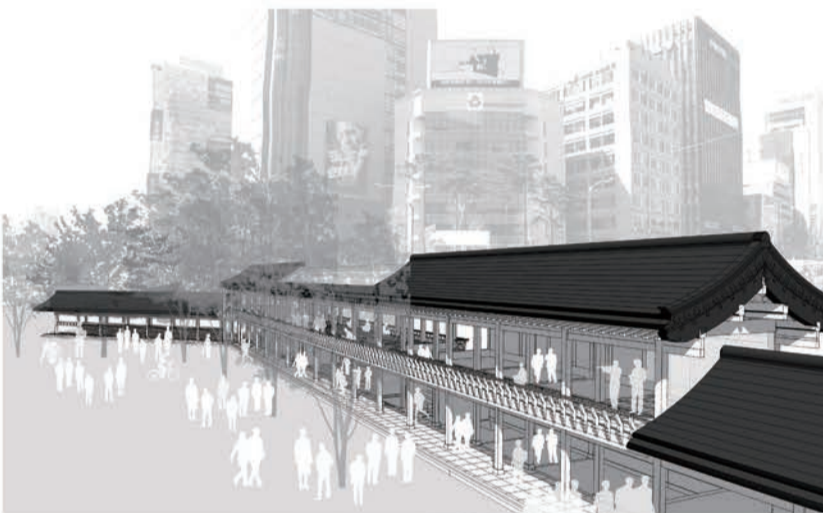
제안
현대 도시에 산재해 있는 도시기반시설인 지하철의 출구와 그 주변공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람들의 일상을 한옥의 공간과 연계하여 제안한다. 지하철은 도시인들의 주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우리가 늘 접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최근 다양한 전시, 공연등의 문화 행사와 휴식공간을 더하여 도시민의 문화적 휴식공간으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공간에만 국한되고, 지상 출구 주변은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단지 입구로의 역할 이외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하철 역 출구주변을 한옥의 미려한 형태적인 아름다움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 프로그램 등의 적용을 통하여, 일상에 녹아드는 신 한옥으로 제안한다. 이는 이동의 중심이고 지역의 관문으로 만남의 장소로서의 지하철역의 장소성을 재인식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의 삶을 중요하게 만들고, 한옥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신 한옥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려 한다.

- 분석**
- 그. 입 지 : 일상 속에서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접할 수 있는 공간.
 - ㄴ. 프로그램 : 도시환경속에 공공시설로서 우리의 정서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ㄷ. 공간 : 늘 배임감이 마추지는 공간, 다수의 대중에 노출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ㄹ. 구조 : 전통 한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극복. 해결 ex) 지붕구조, 복층화.
 - ㄹ. 변 형 : 간의 변형, 구성의 변형
 - ㄹ. 변 화 : 공간의 변화, 재료구성 변화, 도시경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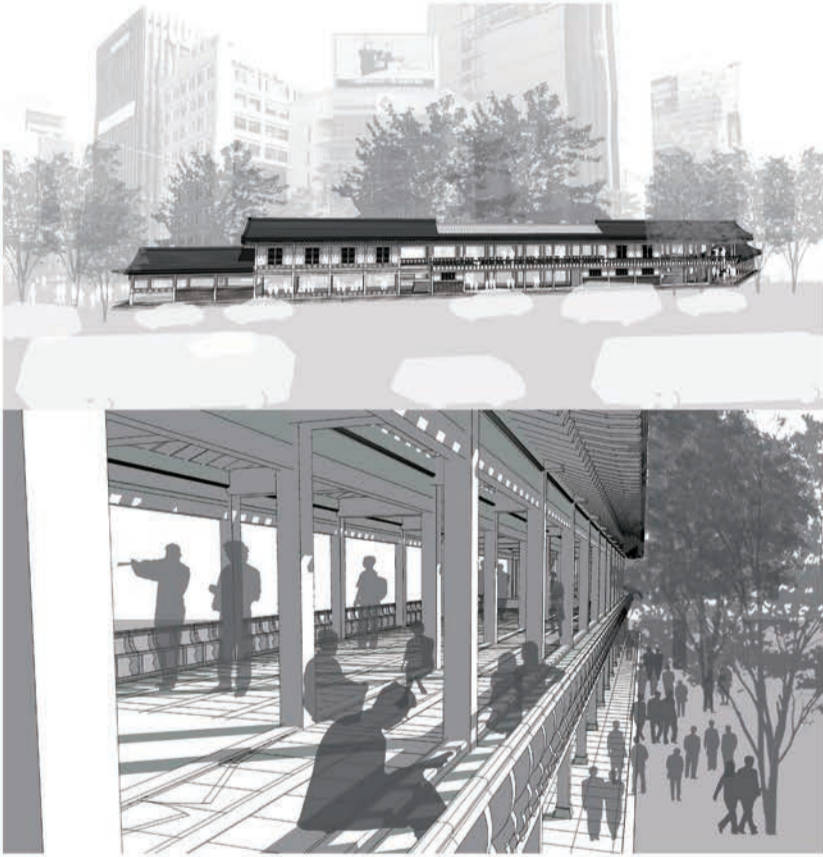


방법
평면형태에 따른 구분, 지붕형태에 따른 구분, 프로그램 적용의 세가지 요소들의 조합하는 방법으로 각 시설들을 제안한다.

각 대지가 갖고있는 특성에 따라서 조합은 달라지게 되며, 유연하게 현대도시속에 적용 가능하다. 이는 한옥이 현대 도시구조와의 접점을 찾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익숙하게 된 한옥은 도시인프라에 녹아들어 신한옥으로 거듭난다.



적용대지 강남역 9번, 10번출구
강남역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 중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의 모든 도시 철도역을 통틀어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다. (2009. 서울메트로)
강남역은 강남구의 중심에 위치하며, 강남의 상권을 대표하며 패션, 문화 등의 최신 경향을 엿볼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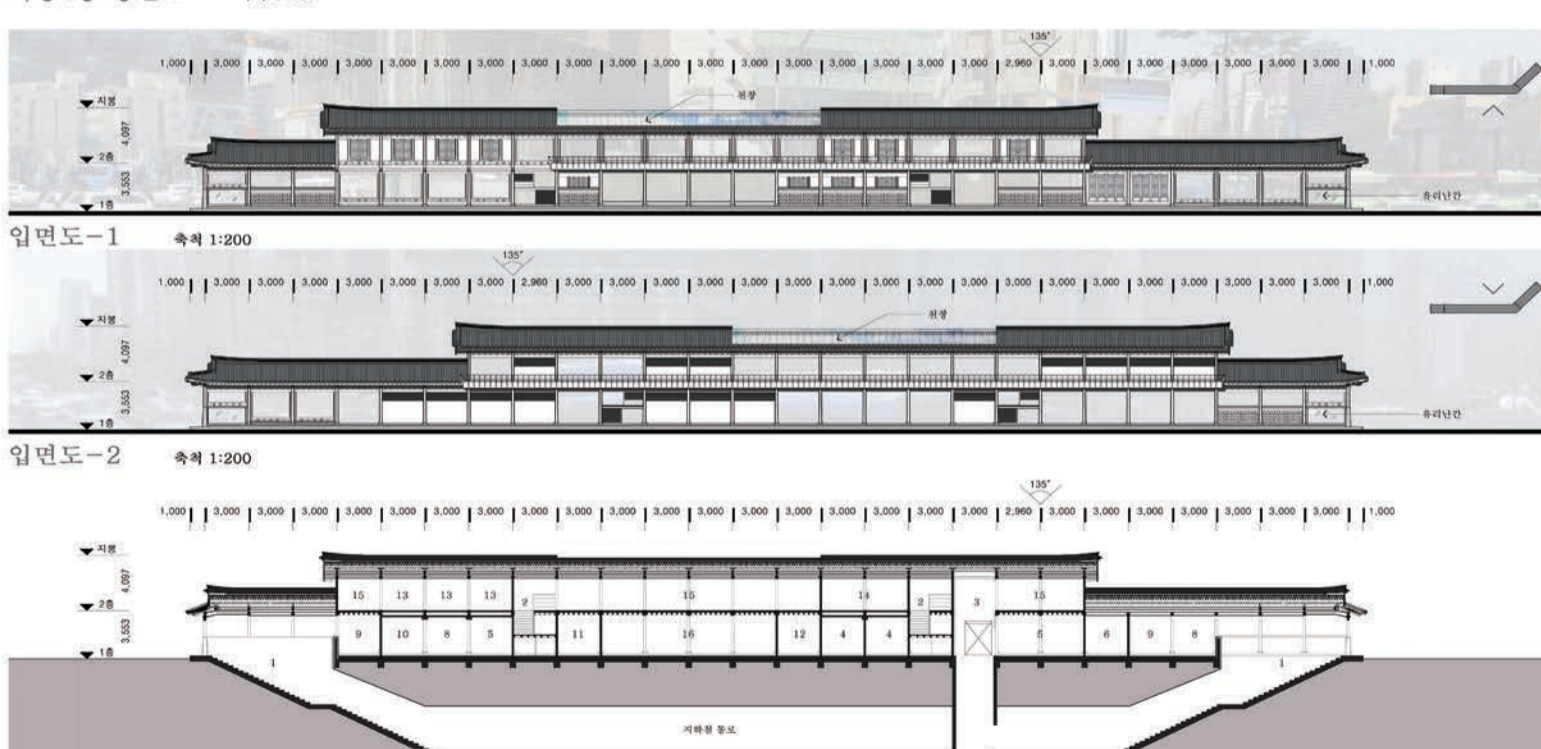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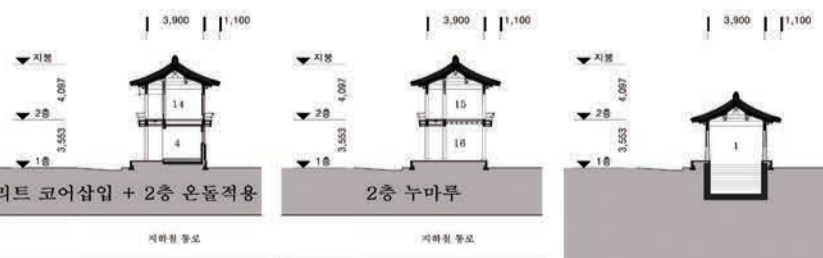


평면계획 및 공간구성
행랑과 퇴간 : 반복되는 공간의 연속으로 칸을 열고, 닫음으로써 공간의 완급을 조절하고 퇴간을 통해 보행의 흐름을 연속시킨다.
누마루 : 1층의 행랑이 보행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2층의 누마루는 거처 가는 과정의 장소가 아닌 목적의 장소로서 도시를 조망하고, 사유하는 공간이다.

입, 단면계획
출구부분은 사람들의 보행을 위해 집의 고를 높여 시각적 시원함을 주도록 하는 대신 집의 비례상의 불쾌함을 덜기위해 긴 주추돌 기초와 기단부를 높이는 입면계획을 함으로써 시각적 안정감을 고려하였다. 2층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마루짜기 방법과 함께 콘크리트 코어를 사용하므로써 2층에 온돌방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 지하철 출구
2. 계단실
3. 엘리베이터
4. 화장실
5. 객실, 권역함
6. 관공실
7. 자선기보관소
8. 무가신문 배포대
9. 자동판매기
10. 물품보관소
11. 소매점
12. 구두수선소
13. 카페, 식당
14. 은행
15. 누마루
16. 행랑



서언
한옥은 원래 우리의 일상의 집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옥이 가져야 할 비전은 한옥의 최소성을 높이거나 전통성의 고취가 아니다. 한옥을 기존인식에의 답습처럼 특별하고 귀한 존재, 보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찾아다니지 않아도,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힘들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하나, 둘 자연스럽게 채워지도록 함으로써, 현대 시상의 건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도시에 신 한옥을 통해서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정취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느끼기를 강요하는 집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배경으로 혹은 주제로 채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안
현대 도시에 산재해 있는 도시기반시설인 지하철의 출구와 그 주변공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람들의 일상을 한옥의 공간과 연계하여 제안한다. 지하철은 도시인들의 주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우리가 늘 접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최근 다양한 전시·공연 등의 문화 행사와 휴식공간을 확장하는 등 도시민의 문화적 휴식공간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공간에만 국한되고 지상 출구 주변은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단지 입구로의 역할 이외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하철 역 출구주변을 한옥의 미려한 형태적인 아름다움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 프로그램 등의 적용을 통하여 일상에 녹아드는 신 한옥으로 제안한다.

Neo - Hanok
V i s i o n



준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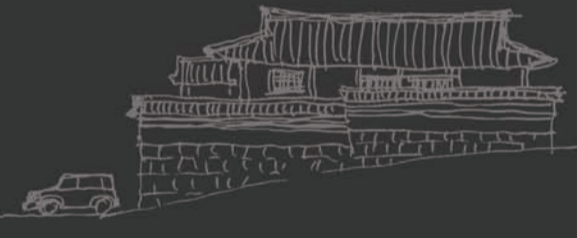
가회동 엘(L) 주택

용도 : 단독주거
층수 : 지상 1층/ 지하층
대상지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5-1
수상자 : 황두진(설계자), 김장권(시공자), 이지흥·오모연(건축주)



가회동 엘(L) 주택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5-1
 지역 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주소 : 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152.64㎡
 건축면적 : 84.76㎡
 연면적 : 133.36㎡
 건폐율 : 42.43%
 용적률 : 42.43%
 규모 : 지상1층/지하1층
 최고높이 : 5.1m
 구조방식 : 목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내부 마감 : 온돌마루, 무늬목, 석재타일
 외부 마감 : 연석 기와지붕, 전벽돌, 최마감
 설계 기간 : 2007.09~2008.02
 공사 기간 : 2008.04~2009.04



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실 위에 전통 목구조를 충실히 구현한 지상부를 올린 특징을 가진다. 지하에는 주차장과 서재, 수납공간 등이 배치되어 있고 지상부에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주된 생활공간이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 주택에서는 전통한옥의 맛과 멋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 또한 충족할 수 있다.
 평면은 전형적인 도시형 2차 한옥의 유형을 따르면서도 대지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형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중앙에 있는 중정과는 별도로 안방을 위한 별도의 마당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다. 대문간과 안방 마당 사이에는 전통적 취병(擘屏)을 응용한 '그린 월'(green wall)을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통 창호를 사용하면서도 풍소란(風小欄), 3중 창호 등의 디테일을 적용하여 기밀성과 단열성 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거실 전면의 창호 일부에 부분적으로 단열유리를 적용하여 겨울에 창호를 닫고 실내에서 바깥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옥의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의 설비를 합리적으로 설치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붕을 건식으로 구성하여 그 내부의 공간에 배관, 덕트 등을 설치하고 실내 단면의 고저 차를 이용, 대청의 측면 벽에 방난방용 토출구 등을 배치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아울러 안방 상부에 다락을 만들어 공간의 수직적인 사용을 꾀하였고 대청마루 하단에 지하실 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하는 등, 한옥의 단면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적용된 주택이기도 하다.

구로구립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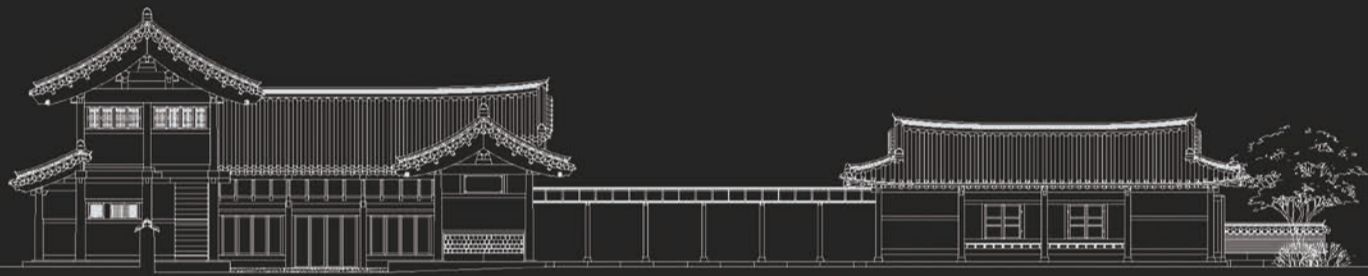
용도 : 공공문화시설
층수 : 지상 2층
대상지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05-24
수상자 : 조정구(설계자), 정구환(시공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건축주)

개봉 글마루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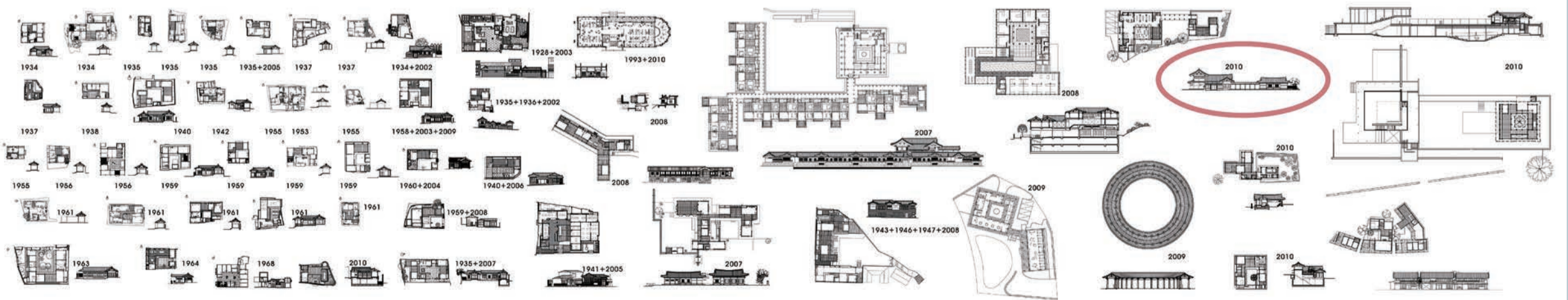
제안하는 한옥도서관은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상의 문화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대지가 오류중학교와 접한다는 점과 남북으로 세장한 필지 모양이란 점이었다.

당장은 물리적으로 학교와 연결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하나의 시설로 계획하여 풀어간다면 교육문화시설로서 거점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은 완공 후 구로구청이 김치공장을 매입해 한옥도서관의 부속기능으로 활용할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구체화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세장한 필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대지가 갖는 형상을 최대한 활용한 접근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주어진 두 가지 프로그램의 적절한 배열을 통해 시너지를 갖는 공간 구성을 계획하여 한옥의 공간감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대지위치: 구로구 개봉동 105-24 대지면적: 880㎡ 건축면적: 341.46㎡ 연면적: 441.09㎡ 규모: 지상 2층 용도: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설계기간: 2009.09 ~ 2010.02 공사기간: 2010.03 ~ 2011.01



guga 都市建築

도서관이라는 역할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생각하였다. 대지는 인접한 중학교 경계를 따라 남북으로 긴 모양으로, 도로 쪽에는 공적인 어린이 도서관을 두고, 안쪽에는 친밀한 느낌의 한옥(체험관)을 배치하였다. 두 한옥 사이는 마당을 놓고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다양한 마당과 입체적인 내부공간을 두어,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마당과 대청, 다락방과 마루, 안방과 누마루 등 한옥의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ㄷ'자 모양의 어린이 도서관 가운데 마당을 '아프리즘'으로 계획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마당에서 다양한 실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당 쪽에 나온 마루가 무대가 되고, 마당이 객석이 되어 작은 공연이나 발표가 이루어지는 장면 등을 상상하였다. 길 쪽에는 2층에 다목적 강당을 두어 영화상

영이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서고 위쪽에 다락을 두고 따로 계단을 두어, '아지트'같은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대지 가운데 위치한 마당은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는 임마와 어린 동생이 놀 수 있는 열린 마당을 구상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쉽나 야외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마당으로 쓰이며, 한 칸에는 도서관과 체험관을 연결하는 회랑을 두었다. 벽이 없는 기둥과 동판을 얹은 지붕으로 가볍고 단순한 조형을 만들었다. 한옥체험관에는 전통 민가의 대청과 안방, 문간, 누마루 등을 두어,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처음 지은 '한옥 도서관'으로, 지역과 우리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였으나, 공공시설로 보다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불교사찰 천간사

용도 : 사찰
 층수 : 지하 1층/ 지상 1층
 대상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42, 642-1
 수상자 : 건축사사무소다리건축(설계자), 성익건설·삼공건설(시공자), 천간사(건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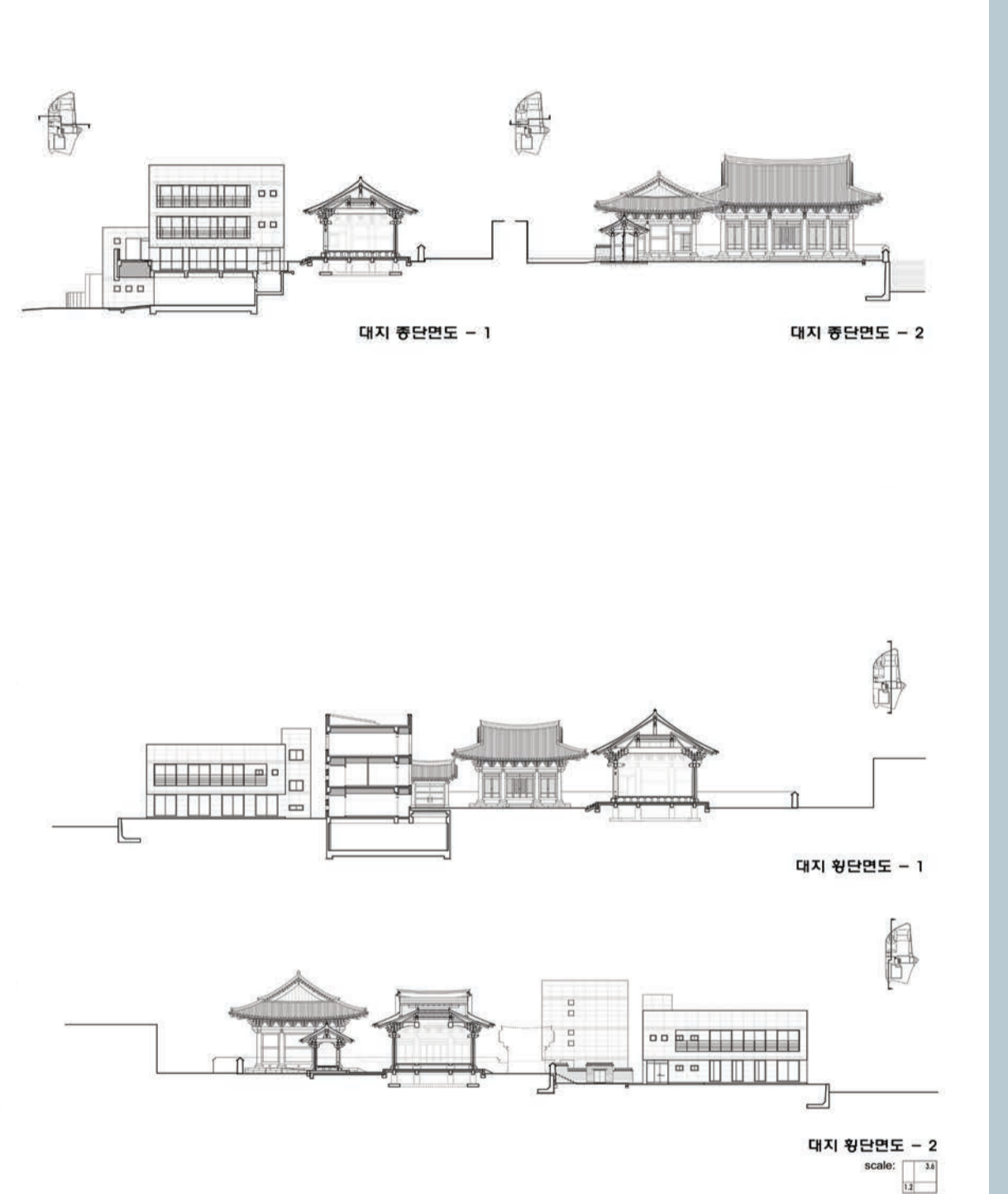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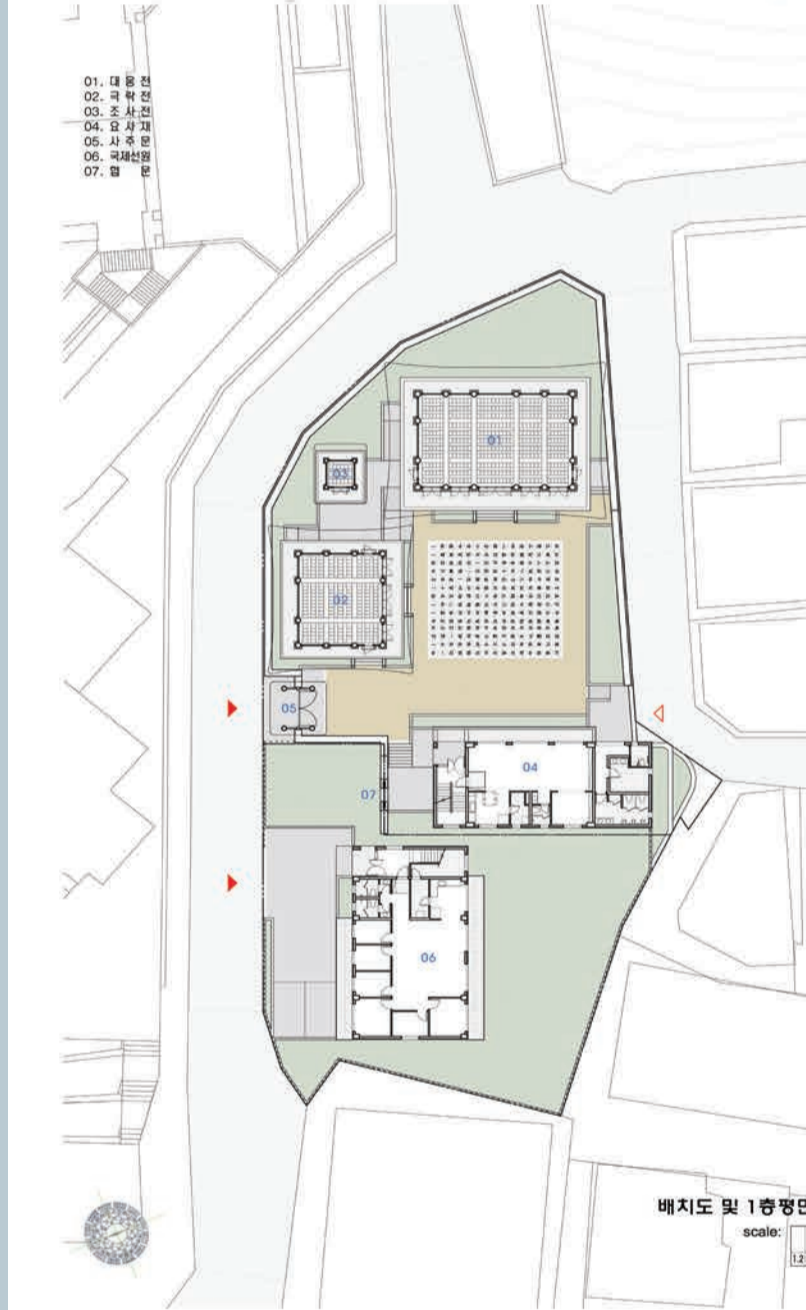
天幹寺
 Cheongansa - Buddhist Temple

-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42, 642-1
- 지역지구: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 종교시설(사찰)
- 용적률: 종교1 / 종교2
- 대지면적: 1335.50㎡ / 762.50㎡
- 건축면적: 372.50㎡ / 212.67㎡
- 연면적: 743.88㎡ / 338.49㎡
- 건폐율: 28.00% / 27.89%
- 용적률: 40.06% / 44.39%
- 규모: 지아1층, 지상3층
- 주요구조: 일반목구조(한식), 철근콘크리트구조

·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 시공자: 삼공종합건설(주), 성익건설(주)
 · 건축주: 대한불교 천간사 불광3구역재개발조합

· 설계, 감리 및 공사관계자
 · 설계, 감리: 조인숙 (다리건축)
 · 리모델링: 이무의 (성익건설)
 · 시공(한옥): 손정길, 주용, 이연준, 도현수, 안배근, 석공, 성용우, 외공, 김중범, 미장, 이부세, 장호, 오동열, 불단, 김정범 (삼공건설) 임재철

· 시공(일반): 임재철



천간사(주지 일명, 1960년 이범은 스님 창건)는 공동주택 재개발 열풍에 밀려 2009년 철거 수용되어 그 일대에 새로 조성한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부지로 신축이전을 한 (재)대한불교 일방선교종 사찰이다. 산에 의지해 개발한 고층 아파트단지를 작은 한옥 사찰이 위용 있게 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한옥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알 수 있다. 이 설계의 주안점은 배치와 토지이용이다. 그리고 주위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물 및 외부공간의 위계나 관계에도 역점을 두었다. 제한된 대지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고저차가 있는 성토대지 위에 최소한의 토목공사로, 한옥 불전과 일반건축인 요사채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부재의 모듈화를 적용해서 공사비의 경제성을 추구했다. 또한 주변이 빈 땅이었을 때는 최적의 풍수라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위요될 때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불전은 좁고 긴 장방형보다는 전후좌우가 비스할수록 예불공간으로 적합하다. 이미 들로 분할되었고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기존설계의 면적변동 없이 대웅전과 극락전을 위치와 규모로써 위계를 설정하고 좁고 긴 장방형의 평면을 되도록 정방형에 가깝게 재설계했다. 삼문을 갖출 여건이 안 되어 일주문과 천왕문의 기능을 사주문(四柱門)으로 통합해서 문비(門扉)를 가운데 두고 네 개의 벽을 만들어 사천왕을 그림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문인 불이문(不二門)은 생략하고 대신 대웅전과 극락전으로 에워싼 마당에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210자를 음각 바닥블록으로 계획하여 불이를 대신 하고자 계획했다. 이는 7言 x 30줄로 된 화엄사상의 요체로 법(法)으로 시작해 불(佛)로 끝난다. (건축사 2011, 1월호 참고)

201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인쇄 2011년 12월 19일

발행 2011년 12월 23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501-1호 국가한옥센터

전화 (031) 478-9600

팩스 (031) 478-9614

이메일 hanok@auri.re.kr

홈페이지 <http://www.hanokdb.kr>

© 국토해양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해양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